

BUSAN

ALMATY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활동보고서

FASHKENT

SAMARKAND

DUBAI

2024 EURASIA DIPLOMATIC CORPS

BUSAN

AMAN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SAYAKO

FUSHEN

DURAI



부산의 비상궤!
글로벌 허브도시로!

The rise of Busan!
Fly to the Global Hub City!

Contents

목 차



01 인사말	04 활동 보고
09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56 일자별 행사 일정
11 정채숙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단장	58 일자별 행사 보고
13 전용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	05 단원·참가기관 활동 후기 및 성과
02 사업개요 및 성과	81 단원 후기
17 사업개요	108 참가 기관 및 대학 후기
19 추진목적	06 언론 보도
21 사전답사 및 준비	122 주요 언론 보도
25 전년 대비 개선된 점	127 언론보도 현황
27 추진실적 및 성과	07 연도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추진 현황
03 행로 및 동행	134 주요 현황
34 주요 이동 경로	08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글로벌도시재단 현황
37 일자별 방문 도시	139 설립개요
38 도시별 주요 행사	140 주요연혁 및 시설
40 세부 일정	142 조직
43 참가자	
50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조직	
52 사업추진 관련 네트워크	



BUSAN

AMIN

SALAM

SHIN

DURA

01

Greeting

인사말

Greeting

인사말



001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위상을 드높이고 돌아온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귀환을 축하드리고, 전체 여정을 이끌어주신 정채숙 단장님과 함께한 단원들, 대학과 기관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러·우 전쟁 등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 중앙아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실�크로드 인근 유라시아 전역으로 도시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여 자매·우호 도시와의 외교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학·생·유치와 문화·관광, 경제·물류 등 도시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시정 성과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아랍에미리트에 이르는 13일간의 긴 여정 동안 부산의 유능하고 패기 있는 청년들이 현지의 대학, 청년, 시민들과 공연, 포럼,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 대학 8곳이 ‘스터디 부산 30K 프로젝트 원팀’으로 상호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알렸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중착지인 두바이에서는 2천여 명이 모인 광장에서 ‘부산 페스타 in 두바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산시 관계 기관 3곳이 교육, 영화, 공연 각 전문 분야 교류 협력 활성화의 근거가 될 업무협약을 현지의 해당 분야 전문 기관과 체결하고, ①부산글로벌도시재단-알마티한국교육원, ②영화의전당-카자흐필름, ③부산문화회관-카자흐 국립고려극장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TPO)는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신규 회원 도시로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역대 최대인 총 42개의 공공외교 행사를 치러낸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단일 사업으로는 그 파급효과와 성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우리 부산의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과 위상을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으로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02

정채숙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단장



**‘부산의 비상(飛上)! 글로벌 허브도시로!’
2024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매우 기쁩니다.**



13일간 단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신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님과 박형준 부산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관광, 영화·영상, 문화·예술, 경제 분야에서 긴 일정 동안 42개의 각종 사업 진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대학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부산은 현재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인구 소멸 지역 극복, Study Busan 30K Project 등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활동은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8개 대학과 한 팀이 되어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활동과 부산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해외에 알리는 과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알마티와 타슈켄트, 사마르칸트에서 부산 유학 설명회와 상담회, 부산 영화 상영회를 개최하였고, 청년 활동, 태권도 시범, 부산시립예술단 등 K-컬처를 연계한 부산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Busan is Good for YOU 부산페스타 in 두바이’ 개최를 통해 자매도시 두바이 시민 2천여 명이 모여 부산을 효과적으로 알렸으며, 3개국 4개 도시와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27개 민관산학의 네트워크 발굴에도 힘썼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러시아 횡단 열차를 기저로 하는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사업은 전쟁 등 불안한 세계정세 속에서 발이 묶여버려 2022년도부터 중앙아시아라는 새로운 지역과 교류의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었고, 올해는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교류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알마티한국교육원, 영화의전당-카자흐필름, 부산문화회관-카자흐국립고려극장이 각 분야별로 MOU를 체결하였고, 알마티시가 TPO 회원 도시로 합류해 각 분야에서 향후 실질적 교류를 이어가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으로서 13일의 길고 빠듯한 일정으로 걱정과 염려가 앞섰지만, 하루하루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날에는 어느 해의 일정보다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학하기 좋고 살기 좋은 부산을 몸소 알리며 최선을 다한 19명의 부산 청년들,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에 부산시의 브랜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모두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03

전용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비상飛上을 위한 7,660km의 활주 동안 도시외교단을 이끌어주신 정채숙 단장님과 모든 도시외교단 단원 여러분, 부산 소재 대학 관계자분들과 도움을 주신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푸른 하늘 아래, 넓디넓은 유라시아의 대지 위를 수놓은 도시외교단의 발걸음은 방문과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닌 연결과 소통, 그리고 미래를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이번 도시외교단 활동을 통해 부산은 도시와 도시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었고 부산이 세계로 날아오르는 길에 날개를 펼 추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알마티의 산들바람 속에서, 타슈켄트의 따스한 손길 속에서, 사마르칸트의 빛나는 전통 속에서, 그리고 두바이의 도약하는 열정 속에서 우리는 부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미소와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우정과 협력의 씨앗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이번 외교단의 여정은 활동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이라는 도시의 심장이 뛰는 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전한 열정, 예술이 피운 꽃, 경제와 교육이 맺은 결실은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전의 대장정들이 묵묵히 쌓아 올린 벽돌 위에 이번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벽돌이 한 장 더 올려져 부산의 국제교류가 든든한 기반 위에 자리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하나의 여운이 되어 머물고 있습니다. 부산을 꿈꾸는 모든 이들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영감과 가능성이 가득한 도시로 기억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이 어갈 것입니다.

유라시아의 지평 너머로 번지는 부산의 빛이 더 찬란히 빛나기를 소망하며 이 빛이 전 세계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발자취 위에 더 나은 내일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02

Results

사업개요 및 성과

Overview



슬로건 부산의 비상飛上! 글로벌 허브도시로!

일 정 9. 20(금) ~ 10. 2(수) [11박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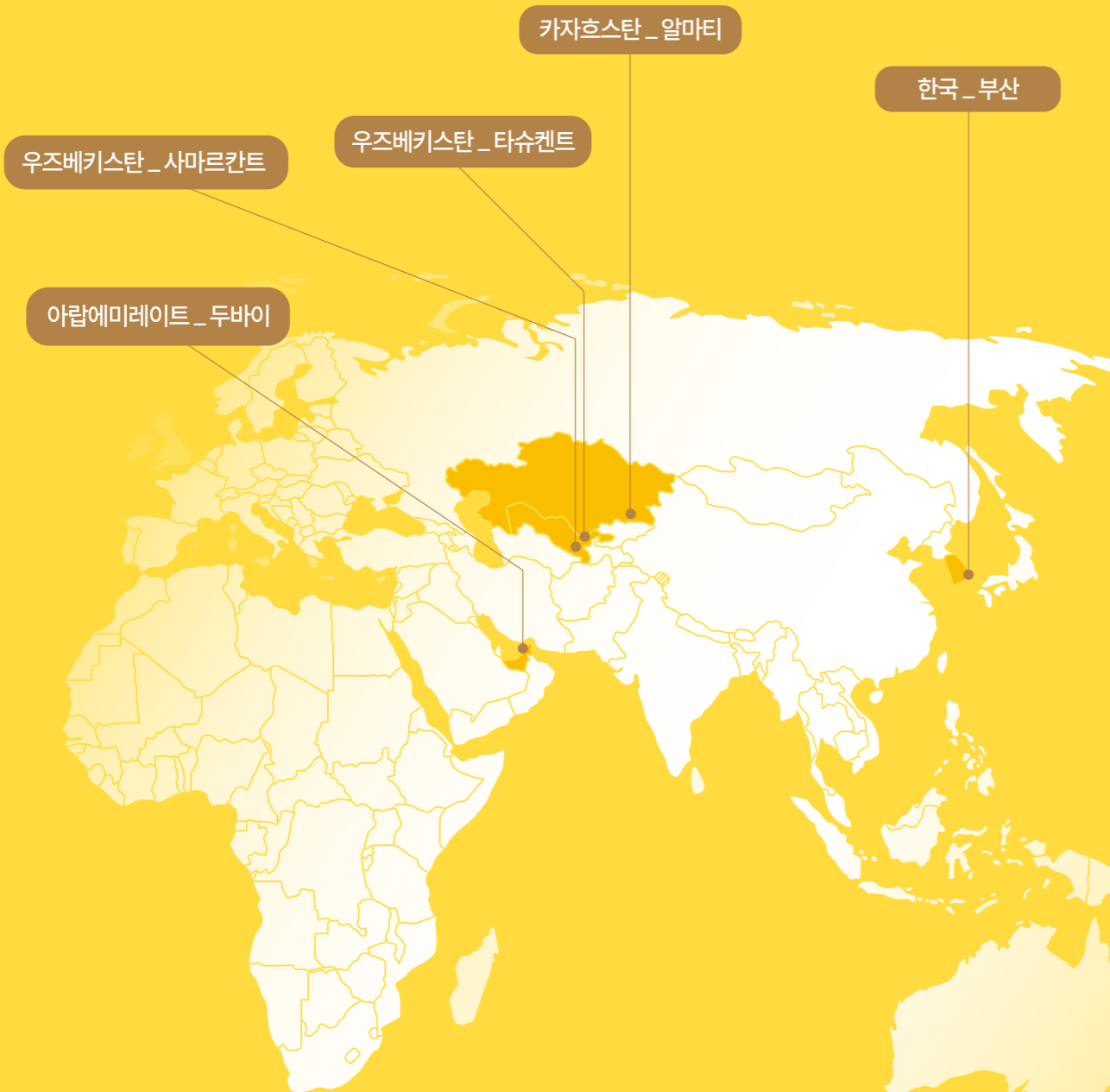
파견도시 3개국 4개 자매·우호 협력 도시

파견규모 15기관 124명 42개 행사

파견경로 한국(부산) → 카자흐스탄(알마티) →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 우즈베키스탄(사마르칸트) → UAE(두바이)

주요내용
교육/청년: 부산 유학생 유치 설명회, 대학 간 협력, 청년 외교활동 등
관광/문화: 우호 협력 도시 기념행사(영화, 음악 등), 부산 페스타 in 두바이 개최 등
경 제: 무역사절단 파견 등

추진목적



001 시정 구현 공헌

유학생 유치, 관광 등 **부산시 중점 시정 구현 공헌**



002 부산 브랜드 제고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홍보·브랜드 제고 노력**



003 실질적 도시외교

경제·문화·교육 분야 등 **실질적 도시외교 실현**

사전답사 및 준비

Preparation



일 정 4.21(일) ~ 5.1(수) [9박 11일]

참가인원 4명
 · 부산시 국제협력2팀(2) : 송태관 주무관, 김자영 주무관
 · 부산글로벌도시재단(2) : 전미경 팀장, 손희승 차장

방문도시 3개국 · 중앙아(2) :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사마르칸트
 4개 도시 · 중 동(1) : UAE 두바이

주요성과
 · 도시별 유관기관 사전 방문 협의를 통한 본행사의 원활한 협조 및 추진 가능과 네트워크 확대
 · 현지 상황 파악, 행사장 및 동선 확인 등 사전 시찰 및 점검 등을 통해 향후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안전·비상사태 등 대응
 · 계획수립 내용 및 예산 등 일정·구간별 점검을 통해 향후 수정 보완 사항 확인

사전답사 및 준비 _ 카자흐, 알마티, 우즈벡,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두바이



카자흐 세계언어대



카자흐 국립고려극장



카자흐 필름



알마티 시청



알마티 한국교육원



알마티 총영사관



주우즈벡 한국대사관



타슈켄트 세종학당



사마르칸트 국립박물관



두바이 한국총영사관



두바이 한국관광공사

전년 대비 개선된 점

Results

Study Busan 30K Project ‘유학하기 좋은 부산’ 홍보(부산 소재 8개 대학 원팀 구성) 및 중앙아시아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부산 원팀 구성 (부산시·재단·대학)

정부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따른 차세대 교류 증진, 인적 및 문화 교류 활성화

· ‘부산 청년 외교활동’ 활성화(전년 대비 3배 선발, K-컬처 및 홍보 활동 등)

부산시 공공기관의 실질적 도시 외교 실현 디딤돌 역할(MOU 체결 연계 추진)

· 부산문화회관-카자흐국립고려극장, 영화의전당-카자흐 필름 등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 체결 1주년 기념행사 추진 (영화 상영회, 친선 음악회, 태권도 시범 등)

영어방송본부 PD 등 재단 전문 인력 합류를 통한 방송 콘텐츠 ‘4 Your Busan’제작 (3회 송출)



추진실적 및 성과

Results

중동아시아 유학생 유치 활동을 통한 Study Busan 30K Project 추진 기여

- 부산시+부산글로벌도시재단+8개 대학(15명)과 원팀 구성
- 현지 부산 유학생 유치 설명회 개최(2회, 알마티/타슈켄트). 각 300여 명 참석
- 부산-사마르칸트 대학 관계자 간담회 개최(사마르칸트 7, 부산 6)
- 타슈켄트1세종학당 내, '부산 코너 설치(부산 및 대학 정보 등 상시 홍보)

'22년 부산-알마티 우호협력도시 체결 후, 분야별 유관기관 MOU 체결 등 실질적 교류 성과 거양

-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TPO) 신규 회원도시 가입 유치(카자흐스탄 알마티)
- 유학생 유치 홍보(부산글로벌도시재단-알마티한국교육원), 영화영상 교류(영화의전당-카자흐필름), 문화공연 교류(부산문화회관-카자흐국립고려극장)

K-컬처 활용 부산의 브랜드 제고 및 문화 교류 활성화

-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 친선음악회(시립합창단, 600여명 관람)
- Busan is Good for YOU 부산 페스타 in 두바이(2천여 명 관람, 국악관현악·태권도 시범)
- 부산영화 상영회 개최(2회, 알마티 100여명/250여명 관람)
- 부산 관광 및 체험홍보 부스 및 태권도시범 공연 등(13개 행사)

전년 대비 부산 청년 단원 확대, 외교 활동 콘텐츠 다양화 및 강화

- 19명(부산지역 전대학 추천 및 공개 선발) 대학생 단원 선발(영상·언어 등 전공 및 예체능 고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유니브포럼, 챔피언십, 쿠팡클래스, 유학생 유치를 위한 부산 홍보 등 성황리 개최(13회, 현지 對시민 등)
- 두바이 기업진출을 위한 대학생 진로 간담회, 도시외교단 활동 성과 보고회 개최 등
- ※연도별 청년 단원 현황 : '22년 9명, '23년 7명, '24년 1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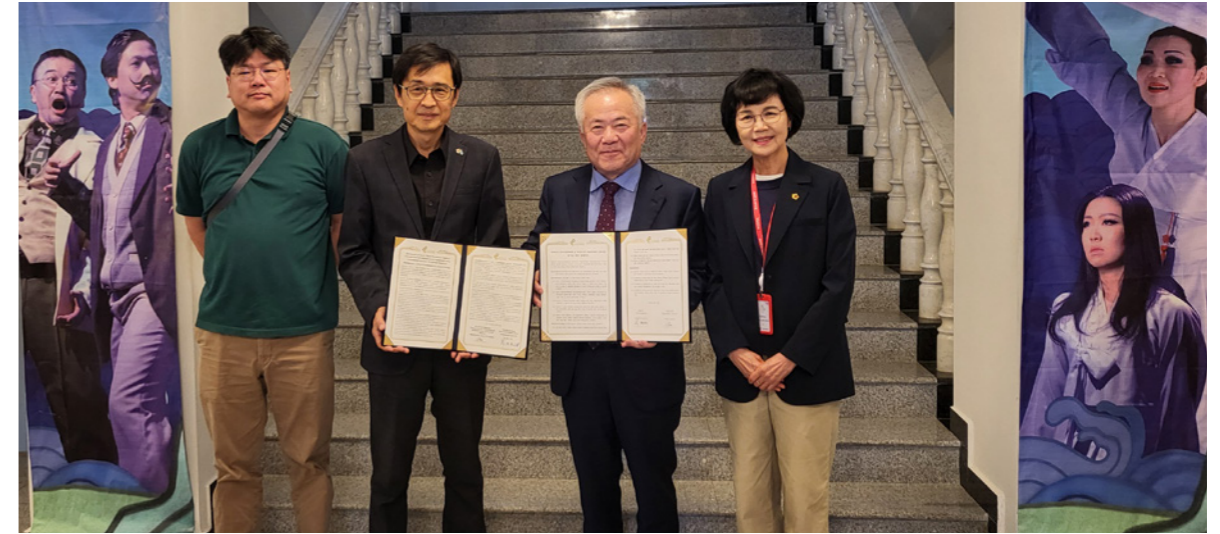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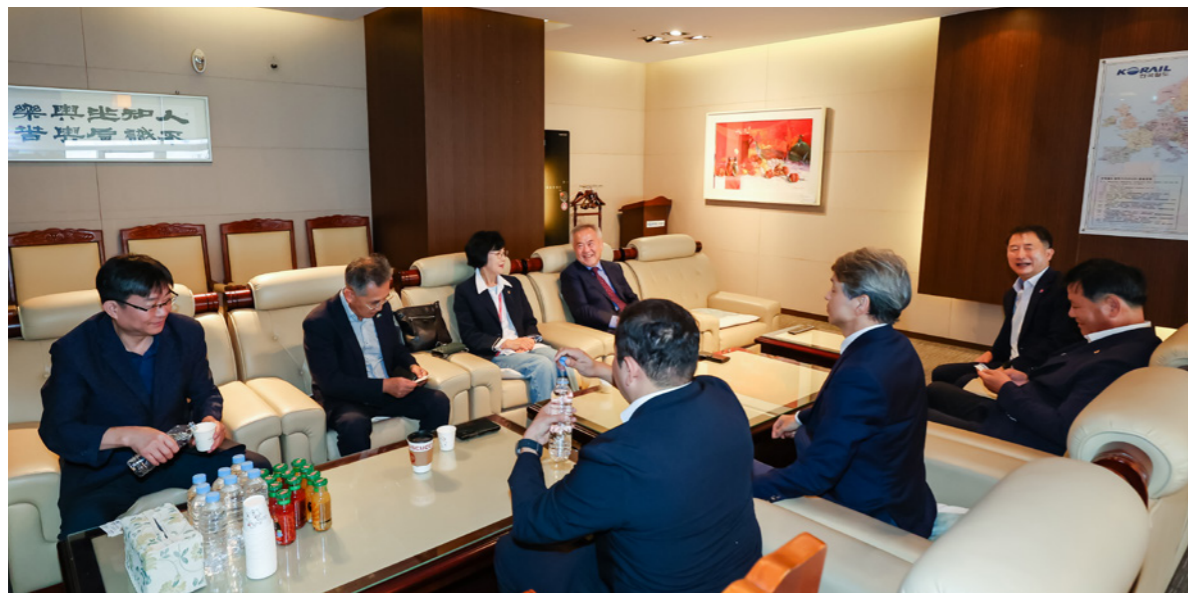
유라시아 지역 27개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부산시 도시외교 확대 발전을 위한 유라시아 지역 협력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확대
- 카자흐스탄(7개) *알마티시청, 주알마티 총영사관, 카자흐필름 등
- 우즈베키스탄(13개) *사마르칸트시청, 주우즈벡 한국대사관, 현지 대학 및 세종학당 등
- UAE(7개) *두바이시청, 주두바이 총영사관, KOTRA두바이무역관 등

도시외교단 활동 홍보 강화

- 일정별 사업별 보도자료 배포 및 영어방송 송출을 통한 홍보
- 국내·외 언론보도 156건 *국내 141, 해외 12, 영어방송 3회







BUSAN

AMMAN

SALAKHAD

FOSHAN

DUB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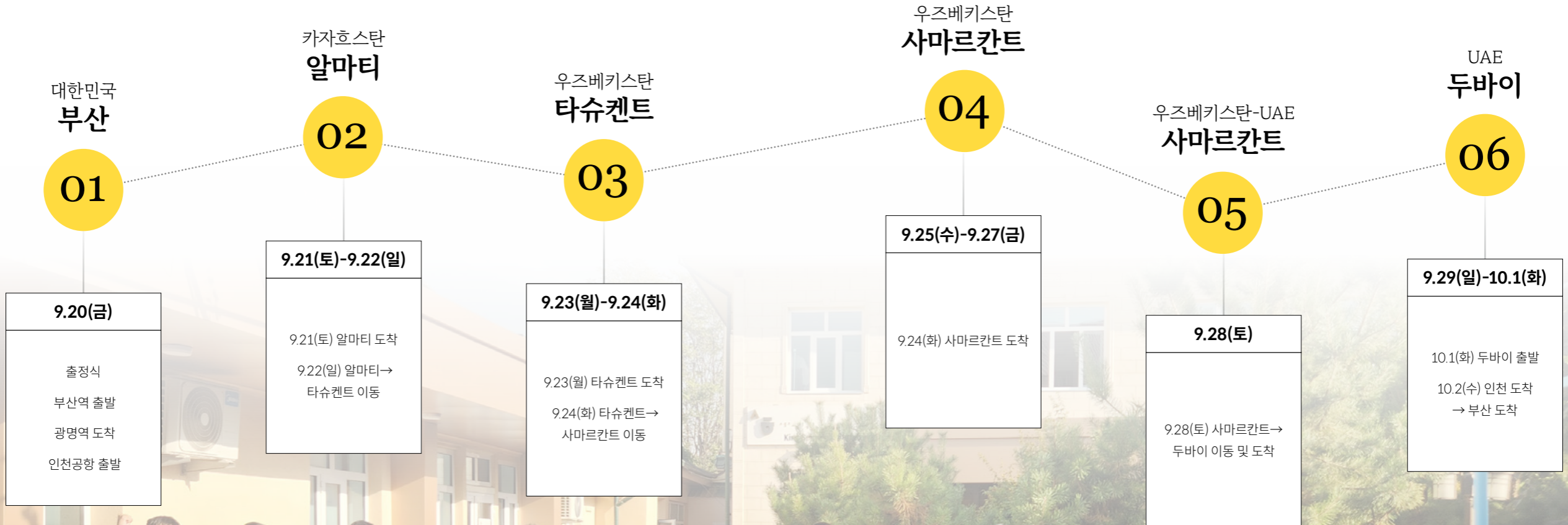
03

Routes

행로 및 동행

Routes

주요 이동 경로



Routes



1일차	9.20(금)	부산, 인천 알마티
2일차	9.21(토)	알마티
3일차	9.22(일)	알마티 타슈켄트
4일차	9.23(월)	타슈켄트
5일차	9.24(화)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6일차	9.25(수)	사마르칸트
7일차	9.26(목)	사마르칸트
8일차	9.27(금)	사마르칸트
9일차	9.28(토)	사마르칸트 두바이
10일차	9.29(일)	두바이
11일차	9.30(월)	두바이
12일차	10.1(화)	두바이
13일차	10.2(수)	인천, 부산

Routes

도시별 주요 행사

<p>① 부산 ⇄ 알마티 9.20(금)</p> <p>부산역 출정식</p> <p>(광명역) 11:00-3:27(KTX) (인천공항) 18:05 출발 (알마티) 20:40 도착</p>	<p>▶▶ 열차 / 항로</p>	<p>② 알마티 9.21(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의전당-카자흐필름 MOU • 부산 유학생 유치 알마티 설명회 • 부산글로벌도시재단-알마티한국교육원 MOU 체결 • 부산 홍보 활동 • 부산 영화 상영회 	<p>⑦ 사마르칸트 9.26(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유학생 유치 사마르칸트 간담회 • 부산청년외교활동 (캠퍼스 투어) • 부산 홍보 활동 •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 친선 음악회 	<p>⑧ 사마르칸트 9.27(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청년 외교활동 (부산-사마르칸트 챔피언십) • 스터디 & 필드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로시아 박물관 탐방 등 정부 ODA 현장 시찰 - 문화 교차로 유네스코 유산 	<p>▶▶ 항로</p>
<p>③ 알마티 ⇄ 타슈켄트 9.22(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터디 & 필드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블락 및 고려인 관련 • 부산문화회관-카자흐국립고려극장 MOU <p>(알마티) 9/22 22:45 출발 (타슈켄트) 9/23 00:25 도착</p>	<p>▶▶ 항로</p>	<p>④ 타슈켄트 9.23(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슈켄트1 세종학당 부산코너 현판식 • 부산 청년 외교활동(쿠킹클래스) 	<p>⑨ 사마르칸트 ⇄ 두바이 9.28(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터디 & 필드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바이 미래박물관 <p>(사마르칸트) 04:05 출발 (두바이) 06:30 도착</p>	<p>⑩ 두바이 9.29(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페스타 in 두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식(19:00) - 무대 공연 - 관광 및 체험 부스 등 • 부산 홍보 활동 	<p>▶▶ 항로</p>
<p>⑤ 타슈켄트 ⇄ 사마르칸트 9.24(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유학생 유치 타슈켄트 설명회 • 부산 홍보 활동 • 스터디 & 필드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슈켄트 일대 <p>(타슈켄트) 19:17 출발 (사마르칸트) 21:36 도착</p>	<p>▶▶ 육로(열차)</p>	<p>⑥ 사마르칸트 9.25(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청년 외교활동 (유니브 포럼) • 스터디 & 필드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마르칸트 티무르제국 관련 • 부산 영화 상영회 • 부산 홍보 활동 	<p>⑪ 두바이 9.30(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바이 시장 면담 • 청년 취업 간담회 • 외교단 성과 보고회 	<p>⑫ 두바이 ⇄ 인천 ⇄ 부산 10.1(화)-10.2(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터디 & 필드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리티지 빌리지 탐방 <p>(두바이) 10/1, 22:10 출발 (인천) 10/2, 11:50 도착 (인천) 10/2, 17:10 출발 (김해) 10/2, 18:20 도착</p>	<p>▶▶ 항로</p>

Routes 세부 일정

1일자 9.20(금) 출국 : (한국)부산 ▶ 광명 ▶ 인천 ▶ (카자흐스탄)알마티

9:40-11:00	출정식	부산역 맞이방(2층)
11:00-13:27	KTX 이동(부산역 ▶ 광명역)	광명역(KTX/8번승강장 18호차)
14:00-15:00	전세버스 이동(광명역 ▶ 인천공항)	인천공항
18:05-20:40 ^{*4}	인천 ▶ 알마티 이동	알마티공항(아시아나항공 OZ577 (5시간 35분 소요))
22:30	호텔 체크인	알마티 호텔

2일자 9.21(토) 알마티 : 부산 유학생 유치 홍보, 영화 상영

10:00-12:00	개인정비 및 행사준비 영화의전당-카자흐필름 MOU체결 - 관계자 간담회 및 카자흐필름 견학	외교단원 카자흐필름(단장)
14:00-17:00	Busan is good for Study! - 부산 유학생 유치 알마티 설명회, 부산홍보활동	알마티한국교육원
17:30-18:00	부산 영화 상영회 개최	영화 '다우렌의 결혼'
19:00-20:30	카자흐국립 고려극장 방문 및 연극공연 관람	카자흐국립고려극장(연극 '나무', 대학관계자)

3일자 9.22(일) 알마티 : 스터디 & 필드워크, 타슈켄트 이동

09:00-12:00	스터디 & 필드워크(침블락 방문)	침블락
15:00-16:00	부산문화회관-카자흐국립고려극장 MOU체결 - 고려극장 시찰	카자흐국립고려극장
16:00-18:00	스터디 & 필드워크(고려인 및 알마티 관련)	젠코바 대성당 등(공항 이동)
22:45-00:25	알마티 ▶ 타슈켄트 이동(항공)	타슈켄트 공항(우즈벡 항공 HY766(1시간 40분 소요))

4일자 9.23(월) 타슈켄트 : 청년외교활동, 세종학당 1 부산코너 설치

01:30	호텔 체크인	리치파크호텔
10:00-12:00	개인정비 및 행사 준비	
14:00-17:00	Busan is good for Study! - 부산코너 개소 및 현판식 개최(부산 대학 참여) - 부산청년 외교활동 (양국 쿠킹클래스 진행)	타슈켄트1 세종학당

5일자 9.24(화) 타슈켄트 : 부산 유학생 유치 홍보, 스터디&필드워크, 사마르칸트 이동

10:00-12:30	Busan is good for Study! - 부산 유학생 유치 타슈켄트 설명회, 부산홍보	타슈켄트한국교육원
14:00-17:00	스터디 & 필드워크	타슈켄트 시내
19:17-21:36(선발)	타슈켄트 ▶ 사마르칸트 이동(열차)	타슈켄트 중앙역
19:44-23:09(후발)	(편명 : 선발 772호, 후발 712호)	

6일자 9.25(수) 사마르칸트 : 청년외교 활동, 스터디 & 필드워크, 영화 상영

10:00-12:00	부산청년 외교활동(부산-사마르칸트 유니브 포럼 개최)	사마르칸트 국립외대
14:00-16:00	스터디 & 필드워크(사마르칸트 티무르제국 관련)	구르 아미르 등
16:30-18:30	부산청년 외교활동(버스킹 공연 및 부산 홍보)	사마르칸트 샤르크올두즈 극장
18:30-20:30	부산 영화 상영회	샤르크올두즈 극장(영화 '리바운드')

7일자 9.26(목) 사마르칸트 : 대학 관계자 간담회, 청년외교활동, 친선음악회 개최

10:00-12:00	Busan is good for Study! (대학관계자) 부산-사마르칸트 주요 대학 관계자 간담회 및 네트워크 구축 (단원) 캠퍼스 투어 및 학생 교류	실크로드 국제 관광 문화유산 대학교
15:00-19:00	(단장) 16:00-17:00 사마르칸트 시장 예방 (단원)부산청년 외교활동_음악회 참석자 대상 부산 홍보	사마르칸트시청 사마르칸트주 음악드라마극장
19:30-21:30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 친선 음악회	사마르칸트주 음악드라마극장 (부산시립합창단 공연)

8일자 9.27(금) 사마르칸트 : 청년외교 활동, 스터디 & 필드워크

10:00-12:00	부산청년 외교활동(부산-사마르칸트 챔피언십)	사마르칸트 국립외대
12:00-13:30	행정부시장 주재 단원 격려 오찬 간담회	한 아트라스 레스토랑
14:00-17:00	스터디 & 필드워크 - 사마르칸트 문화의 교차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 아프로시아 박물관 등 한국 ODA 현장 시찰	레기스탄 광장, 아프로시아 박물관

9일자 9.28(토) 두바이 : 사마르칸트 ▶ 두바이 이동

01:30-02:00	호텔 출발 - 사마르칸트 공항 도착	사마르칸트 공항
04:05-06:30 ^{*1}	사마르칸트 ▶ 두바이 공항 이동	두바이 공항(플라이두바이 FZ770(3시간 25분 소요))
08:00	호텔 얼리 체크인 및 조식, 개인정비, 중식	Movenpick Grand AL Bustan
16:30-18:00	스터디 & 필드워크(두바이 미래박물관 견학)	두바이 미래박물관

10일자 9.29(일) 두바이 : 부산페스타 개최

13:00-17:00	부산 페스타 in 두바이 행사 준비	두바이 페스티벌 시티몰 Imagine 광장
18:00-23:00	Busan is good for YOU! 부산페스타 - 개막 세레모니(19:00), 공연단, 부산관광 홍보, 문화체험 부스 운영 등	12:00 단장님 KOTRA 오찬

11일자 9.30(월) 두바이 : 진로 간담회, 성과 발표회

14:15-15:00	(단장) 두바이 시장 면담	두바이 시청
17:00-18:00	청년 취업·진로 간담회(주두바이 한국기관 및 기업 관계자 초청)	Movenpick Grand Bustan 호텔 회의실
18:00-19:00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성과 보고회(도시외교단 참가조별 발표 및 감상)	Movenpick Grand Bustan 호텔 회의실
20:00-21:30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격려 만찬	

12일자 10.1(화) 두바이 ▶ 인천 : 스터디 & 필드워크, 두바이 출발

종일	스터디 & 필드워크(헤리티지 빌리지, 수크 마디낫 주메이라 등)	
오찬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장 격려 오찬	
19:00	공항 도착	
22:10	두바이 출발	두바이 공항(대한항공 KE1415(8시간 40분 소요))

13일자 10.2(수) 인천 ▶ 부산 : 부산 도착

11:50	인천 공항 도착	인천공항
13:00-16:30	중식 (참가자 자유식사) 및 자유시간	인천공항
17:10-18:20	항공이동(인천공항 ▶ 부산)	인천공항(대한항공)
19:00	무사 입국기념 단체 기념촬영 및 해산	김해공항

Participants



도시외교단(청년 및 운영진, 9.20-10.2, 16명)

연번	성명	성별	소속/직책	비고
1	정채숙	여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행정문화위원회)	
2	강예린	여	유라시아도시외교단 단원(부산외대 영상콘텐츠융합과 3학년)	
3	김민규	남	유라시아도시외교단 단원(부산외대 국제무역학과 3학년)	
4	김윤솔	여	유라시아도시외교단 단원(부산외대 영어영문학과 4학년)	
5	김주하	여	유라시아도시외교단 단원(부산외대 러시아학과 4학년)	
6	박가영	여	유라시아도시외교단 단원(부경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과 3학년)	
7	박서연	여	유라시아도시외교단 단원(부산외대 영상콘텐츠융합과 2학년)	
8	박찬호	남	유라시아도시외교단 단원(신라대 항공서비스학과 3학년)	
9	손지민	여	유라시아도시외교단 단원(부산대 심리학과 4학년)	
10	신민기	남	유라시아도시외교단 단원(부산외대 경영학과 3학년)	
11	황지민	남	유라시아도시외교단 단원(부산외대 호텔컨벤션학과 3학년)	
12	우혜진	여	부산시 국제도시협력2팀 주무관	
13	전미경	여	부산글로벌도시재단 팀장	
14	손희승	남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차장	
15	이민아	여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리	9.28 귀국
16	김보하	여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리	

Participants

참가자

도시외교단(청년*동아대태권도시범단 및 운영진, 9.23-10.2, 12명)

연 번	성 명	성 별	소 속/직 책	비 고
1	강동근	남	유라시아도시외교단 단원	
2	곽금주	여	유라시아도시외교단 단원	
3	김건하	남	유라시아도시외교단 단원	
4	김동혁	남	유라시아도시외교단 단원	
5	김창욱	남	유라시아도시외교단 단원	
6	박인호	남	유라시아도시외교단 단원	
7	서장호	남	유라시아도시외교단 단원	
8	정홍인	여	유라시아도시외교단 단원	
9	하 준	남	유라시아도시외교단 단원	
10	이용국	남	동아대 태권도학과 교수	
11	이상호	남	동아대 태권도학과 교수	
12	조예지	여	부산글로벌도시재단 편성제작팀 대리	9.28 귀국



도시외교단(Study Busan 30K 프로젝트 원팀 부산 대학 참가자, 9.20-9.27, 8개 대학 15명)

연 번	성 명	성 별	소 속/직 책	비 고
1	김홍길	남	경남정보대학교 국제교류처장	
2	김은희	여	국립부경대학교 주무관	
3	문상민	남	국립부경대학교 주무관	
4	신숙영	여	동아대학교 국제교류과장	
5	박현주	여	동아대학교 국제지원팀장	
6	양혜리	여	동아대학교 국제교류팀 팀원	
7	임동현	남	동의과학대학교 국제협력처 부장	
8	손혜림	여	동의과학대학교 국제협력처 담당	
9	양민종	남	부산대학교 국제처장	
10	권선희	여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교류처장	
11	김성실	여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교류팀 담당자	
12	임희정	여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교류팀 담당자	
13	안형균	남	신라대학교 국제교류팀장	
14	김영직	남	신라대학교 국제교류팀원	
15	허재호	남	영산대학교 국제교류팀 과장	

Participants

참가자

도시외교단(부시장단, 9.25-10.1, 7명)

연 번	성 명	성 별	소 속/직 책	비 고
1	이준승	남	부산시 행정부시장	9.25-10.1 타슈켄트,사마르칸트,두바이
2	황영하	남	부산시 국제협력과장	9.27-10.1 두바이
3	전용우	남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	9.26-10.1 타슈켄트,사마르칸트,두바이
4	구영아	여	부산시 국제도시협력2팀장	9.25-10.2 타슈켄트,사마르칸트,두바이
5	이현진	남	부산시 부시장실 비서관	9.25-10.1 타슈켄트,사마르칸트,두바이
6	김자영	여	부산시 국제도시협력2팀 주무관(러시아어 통역)	9.25-9.29 타슈켄트,사마르칸트
7	정수진	여	부산시 도시외교정책팀 주무관(영어통역)	9.27-10.1 두바이

도시외교단(동아대총장단, 9.28-10.2, 4명)

연 번	성 명	성 별	소 속/직 책	비 고
1	신정택	남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주)세운철강 회장	
2	이해우	남	동아대학교 총장	
3	전승윤	남	세운철강 회장 비서관	
4	허영호	남	동아대 총장 비서관	

도시외교단(시립합창단, 9.24-26, 35명)

연 번	성 명	성 별	소 속/직 책	비 고
1	차재근	남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2	김지용	남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9.23 귀국
3	백경옥	여	부산시립예술단 공연팀장	
4	이기선	남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5	박은지	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6	이정철	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7	이승윤	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8	최원갑	남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9	이유진	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10	김지윤	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11	남지희	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12	정은성	남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13	김태우	남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14	권정은	남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15	최춘식	남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16	김하정	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17	최성규	남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18	박진희	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19	김추리	남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20	이강호	남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21	정은영	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22	장용균	남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23	엄남이	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24	안재형	남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25	권순유	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26	안소영	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27	최현서	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28	배소영	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29	오승중	남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30	양은제	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31	남순천	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32	김나영	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33	손은경	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34	이정희	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35	정지승	남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음향감독)	

도시외교단(TPO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 9.22-28, 2명)

연번	성명	성별	소속/직책	비고
1	우경하	남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 사무총장	
2	한아름	여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 선임	

도시외교단(영화의전당, 9.22-28, 2명)

연번	성명	성별	소속/직책	비고
1	김진해	남	영화의전당 대표이사	
2	이승진	남	영화의전당 영화예술본부장	

도시외교단(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9.28-10.1, 12명)

연번	성명	성별	소속/직책	비고
1	권재고	남	부산문화회관 예술단 운영팀장	
2	이동훈	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3	조은경	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소금
4	박순자	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피리
5	강민정	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해금
6	조혜진	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타악
7	박재현	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타악
8	최정욱	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타악
9	이주헌	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타악
10	최오성	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타악
11	지영재	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피리
12	김인균	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악기담당

도시외교단(물류개척단, 8명) *경제진흥원 주최

연번	성명	성별	소속/직책	비고
1	송복철	남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기관
2	김재갑	남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장	기관
3	김진혁	남	부산경제진흥원 주임	기관
4	허윤수	남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초청전문가
5	박순환	남	유니코로지스틱스(주) 상무	물류기업
6	김준현	남	(주)에이비엘 대표이사	물류기업
7	최수혁	남	정인합동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물류기업
8	방진섭	남	뉴오션해운항공(주) 대표이사	관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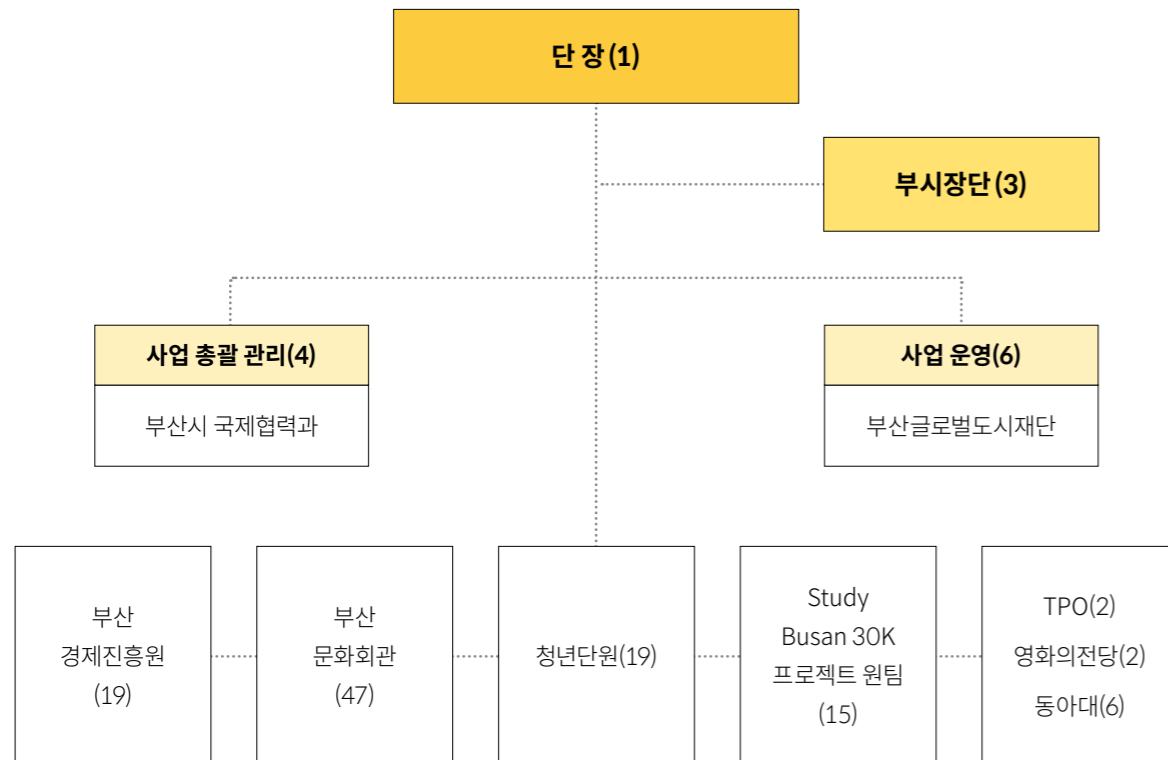
도시외교단(무역사절단, 10개 기업 11명) *경제진흥원 주최

연번	소속/직책	비고
1	부산경제진흥원	
2	(주)제이코	
3	(주)페나스콧테크	
4	(주)코노텍	
5	스틸파트너(주)	
6	도원에이팩스	
7	덴 큐	
8	(주)세기비즈	
9	(주)태화칼파셀	
10	주식회사코어무브먼트	
11	아시아교역 주식회사	

Organization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조직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운영 체계(124명)



역할 분장

기관명	주요 업무
부산시 국제협력과(4명)	·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 관리 · 우호협력도시 체결식 및 부시장단 의전 · 홍보 등 언론 보도 관리
부산글로벌도시재단(6명)	·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 운영 ·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기획·실무 관리감독 · 참가자 관리 지원, 행사 진행, 안전관리 등 · 홍보 등 언론 보도 관리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 단원(19명)	· 청년외교 활동(부산 홍보, 영상 및 사진 촬영 등)
Study Busan 30K 프로젝트 원팀(15명)	·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설명회 및 네트워크 구축
부산문화회관(47명)	·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 친선음악회(합창) · 부산페스타 in 두바이 무대공연(국악) · 고려극장 MOU 체결
부산경제진흥원(19명)	· 물류개척단 및 무역사절단 파견
부산영화의전당(2명)	· 알마티 및 사마르칸트 부산영화상영회 관리 상영 · 카자흐필름 MOU 체결
동아대총장단(4명)	· 부산페스타 in 두바이 행사 참석 및 단원 격려
TPO(2명)	· 중앙아시아 지역 회원 가입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Networks

사업추진 관련 네트워크



국내 기관

연번	기관명
1	부산시의회
2	부산문화회관
3	부산경제진흥원
4	영화의전당
5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6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7	주부산카자흐스탄총영사관
8	코레일경남본부
9	경남정보대학교
10	동아대학교
11	동의과학대학교
12	부경대학교
13	부산대학교
14	부산외국어대학교
15	신라대학교
16	영산대학교
17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해외기관 우즈베키스탄

연번	기관명
1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2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3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4	타슈켄트1 세종학당
5	사마르칸트 시청
6	사마르칸트주 음악드라마 극장
7	샤르크울두즈 극장
8	사마르칸트 예술단
9	타슈켄트 정보기술대학교 분교
10	타슈켄트 국립 경제 대학교 분교
11	사마르칸트 국립 외국어대학교
12	사마르칸트 국립대학교
13	실크로드 국제 관광 문화유산 대학교
14	사마르칸트 국립 건축건설대학교
15	사마르칸트 경제 서비스 대학교
16	사마르칸트 국립 수의과대학교
17	사마르칸트 한국문화원

해외기관 카자흐스탄

연번	기관명
1	주알마티총영사관
2	알마티 시청
3	알마티 한국교육원
4	카자흐필름
5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
6	한국관광공사 알마티지사
7	BNK 캐피탈 알마티지사

해외기관 두바이

연번	기관명
1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2	KOTRA 두바이 무역관
3	샤르자 세종학당
4	두바이 시청

BUSAN

AMIN

SALAKO D

SHAN

DURA

04

Records

활동 보고

Records

일자별 행사 일정

일자	No	날짜/시간	주요일정 및 업무수행내용	장소
9.20(금)	1	09:40-11:00	◦출정식	부산역 맞이방(2층)
	2	10:00-12:00	◦영화의전당-카자흐필름 MOU체결 - 관계자 간담회 및 카자흐필름 견학	카자흐필름
	3	12:00-13:00	◦(단장)알마티총영사 주재 오찬	Del Mar (식당)
9.21(토)	4~8	14:00-17:00	◦부산 유학생 유치 알마티 설명회	알마티한국교육원
			◦개막식, 청년토크 콘서트, 부산청년외교활동(부산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	
			◦부산글로벌도시재단-알마티한국교육원 MOU 체결	
	9	17:30-18:00	◦부산 영화 상영회 개최	
	10	19:00-20:30	◦카자흐국립 고려극장 방문 및 연극공연 관람	카자흐국립고려극장
9.22(일)	11	09:00-12:00	◦스터디 & 필드워크 - 침블락 방문	침블락
	12	15:00-16:00	◦부산문화회관-카자흐국립고려극장 MOU체결 - 고려극장 시찰	카자흐국립고려극장
	13	16:00-18:00	◦스터디 & 필드워크 - 고려인 및 알마티 관련	젠코바 대상당 등
9.23(월)	14~15	14:00-17:00	◦부산코너 개소 및 현판식 개최(부산 대학 참여) ◦부산 청년 외교활동 (양국 쿠킹클래스 진행)	타슈켄트1 세종학당
9.24(화)	16~19	10:00-12:30	◦부산 유학생 유치 타슈켄트 설명회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20	10:00-12:00	◦개막식, 토크콘서트, 부산홍보부스 운영 ◦부산 청년 외교활동 - 부산-사마르칸트 유니브 포럼 개최	사마르칸트 국립 외국어대학교
9.25(수)	21	14:00-16:00	◦스터디 & 필드워크 - 사마르칸트 티무르제국 관련	구르 아미르 등
	22	16:30-18:30	◦부산 청년 외교활동 - 버스킹 공연 및 부산 홍보	사마르칸트 샤르크올두즈 극장
	23	18:30-20:30	◦부산 영화 상영회	

일자	No	날짜/시간	주요일정 및 업무수행내용	장소
9.20(금)	24~25	20:00-12:00	◦(대학관계자) 부산-사마르칸트 주요 대학 관계자 간담회 및 네트워크 구축 ◦(단원) 캠퍼스 투어 및 학생 교류	실크로드 국제 관광 문화유산 대학교
	26	12:00-13:00	◦부시장 주재 격려 오찬	
	9.26(목)	27	16:00	◦(단장) 16:00-17:00 사마르칸트 시장 예방
9.26(목)	28	15:00-19:00	◦(단원)부산 청년 외교활동 - 음악회 참석자 대상 부산 홍보	사마르칸트시청
	29	19:30-21:30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 친선 음악회 (부산시립합창단 공연)	사마르칸트주 음악극극장
	30	10:00-12:00	◦부산 청년 외교활동 - 부산-사마르칸트 챔피언십	사마르칸트 국립 외국어대학교
9.27(금)	31	12:00-13:30	◦행정부시장 주재 단원 격려 오찬 간담회	Suzani (식당)
	32	14:00-17:00	◦스터디 & 필드워크 - 사마르칸트 문화의 교차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 아프로시업 박물관 등 한국 ODA 현장 시찰	레기스탄 광장, 아프로시업 박물관
9.28(토)	33	16:30-18:00	◦스터디 & 필드워크 - 두바이 미래박물관 견학	두바이미래박물관
	34	12:00-13:30	◦(단장)두바이무역관장 오찬	쇼군 아리랑 (식당)
9.29(일)	35~36	18:00-23:00	◦Busan is good for YOU! 부산페스타 - 개막 세레머니(19:00), 공연단, 부산관광 홍보, 문화체험 부스 운영 등	두바이 페스티벌 시티몰 Imagine 광장
			◦부산 청년 외교활동(부산홍보 부스 운영)	
9.29(일)	37	12:30	◦(단장) 두바이 시장 면담	두바이시청
	38	14:00-15:00	◦청년 취업·진로 간담회 - 주두바이 한국 기관 및 기업 관계자 초청	Movenpick Grand Bustan 호텔 회의실
	39	17:00-18:00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성과 보고회 - 도시외교단 참가 조별 발표 및 감상	
9.30(월)	40	20:00-21:30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격려 만찬	압델와합 (식당)
	10.1(화)	41~42	10:00-18:00	◦스터디 & 필드워크 - 헤리티지 빌리지, 수크 마디낫 주메이라 등 ◦단장 주재 격려 오찬

Records

일자별 행사 보고

0
일차

참가자 선발, 사전준비 및 교육, 오리엔테이션



1
일차

9.20(금)
출정식 - 한국 부산





2
일차

9.21(토)

영화의전당-카자흐필름 MOU 체결 / 주말마티 대한민국 총영사 오찬 간담회 / 알마티 한국교육원 대학 관계자 간담회 / 부산글로벌도시재단-알마티 한국교육원 MOU 체결 / 부산 유학생 유치 알마티 설명회 개막식 / 부산 유학생 유치 알마티 설명회 / 부산 유학생 유치 알마티 토크 콘서트 / 청년외교팀 부산 홍보 / 부산 영화 상영회 / 고려극장 견학





3
일차

9.22(일)

부산문화회관-카자흐국립아카데미고려극장 MOU 체결 / 필드워크



4 일차

9.23(월)

타슈켄트1 세종학당-대학 관계자 간담회 및 시찰 / 부산코너 현판식 / 청년외교활동 - 쿠킹클래스



5 일차

9.24(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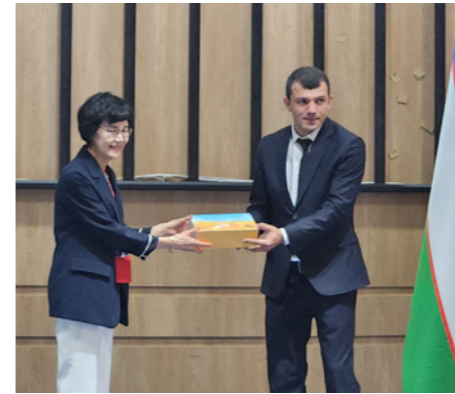
부산 유학생 유치 타슈켄트 설명회 개막식 / 부산 유학생 유치 타슈켄트 설명회 / 부산 유학생 유치 타슈켄트 토크 콘서트 / 청년외교팀 부산 홍보



6 일차

9.25(수)

청년외교활동 - 유니브 포럼 / 사마르칸트 필드워크 / 부산 홍보 활동 / 부산 영화 상영회



7 일차

9.26(목)

부산 유학생 유치 사마르칸트 간담회 / 청년외교팀 캠퍼스 투어 / 사마르칸트 시청 예방 / 부산 홍보 활동 /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 친선 음악회



8
일차

9.27(금)

청년외교활동 - 한마음 체육대회 / 행정부시장 주재 단원 격려 오찬 간담회 / 사마르칸트 필드워크



9
일차

9.28(토)

두바이 필드워크



10
일차

9.29(일)

두바이 무역관장 오찬 / 부산 페스타 in 두바이 / 부산 홍보 활동



11
일차

9.30(월)
두바이 시장 면담 / 청년 취업·진로 간담회 /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성과 보고회 /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격려만찬



12
일차

10.1(화)
필드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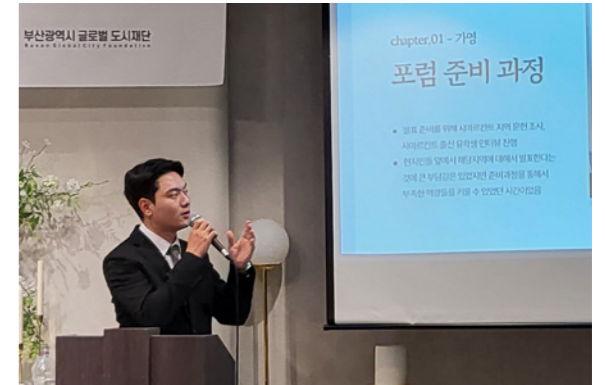
13 일차

10.2(수) 귀국



14 일차

10.31(목) 해단식



BUSAN

AMIN

SALAKO D

SHAN

DURA

05

Review

단원·참가기관 활동 후기 및 성과

단원 후기
001

박찬호 단원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으로의 도약

이번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활동은 부산을 대표하는 외교단으로서, 양 도시 간의 교류와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고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널리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문화 부스 체험과 같은 교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태권도단과의 협업 활동을 통해 현지인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이루며 부산을 넘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포용력과 국제적인 감각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11박 13일 동안 총 42개의 행사를 진행한 이번 여정은 저에게 팀 리더로서의 '책임감'과 '내적 성장'을 선사하며 더없이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사마르칸트에서 진행된 다채로운 행사는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국을 현지 사회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마티 한국교육원 방문과 침볼락에서의 필드워크, 쿠킹 클래스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를 현지인들에게 소개하는 한편,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직접 경험하며 상호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타슈켄트1 세종학당 부산코너의 현판식과 문화 부스 활동(키링 만들기, 서예 체험 등)은 현지인들이 한국 문화를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과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고, 현지에서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 내에서 '부산'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나 한국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더 적극적으로 돕고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얻었습니다.

9월 25일 진행된 포럼에서는 '부산과 사마르칸트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두 도시 간의 문화 및 경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럼 참여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은 저와 팀원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했으며, 이를 직접 진행하면서 도시외교단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포럼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7,660km의 여정, 팀 리더로서의 성장

7,660km에 이르는 대장정 속에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대학생팀의 팀 리더로서 맡았던 역할은 저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팀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의견을 조율하며 일정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원들과의 유대감이 깊어졌고, 국제 행사에서 요구되는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저는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목표를 이루는 데 주안점을 두고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배움은 단순히 문화적 교류를 넘어, 부산과 글로벌 사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임할 것입니다.

단원 후기
002

강예린 단원



유라시아 외교단 단원으로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두바이를 방문한 경험은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첫째,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는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각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접하며 부산의 아름다움과 고유한 문화를 홍보하는 활동을 통해, 부산이 가진 특별함에 대해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현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부산이 어떻게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이를 영상 콘텐츠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지의 전통문화, 음식, 예술 등을 경험하며 상호 존중과 이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셋째, 외교단 활동을 통해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각국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모습은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동기부여와 함께 체력적으로 힘든 순간을 견뎌낸 것이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 개인적인 성장뿐 아니라, 향후 영상 콘텐츠 제작에서도 더욱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고 싶습니다.

단원 후기
003

김민규 단원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자주 참여했지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처음이라 출국 전에는 긴장도 되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교단 단원들과 재단 관계자들의 열정적인 협동심을 보며 "긴장하지 말고 순간을 즐기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3개 국가(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두바이)와 4개 도시를 방문하며 특히 카자흐스탄 알마티가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타국에서 홍보 부스를 열어 도시와 학교를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 현지 학생들이 부산과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아 그들의 꿈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었던 순간은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 'PSC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주제로 다시 알마티를 방문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들도 이번 활동을 통해 값진 경험과 큰 동기부여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11박 13일간 활동을 하며 잠깐의 만남과 이별이 깃든 추억은 여운으로 남아 평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부산시 관계자분들과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단원 후기
004

김윤솔 단원

저는 이번 유라시아 도시 외교단 활동을 통해 살면서 쉽게 경험해보지 못할 값진 경험을 해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출국 하기 전 행사를 기획하고 세세하게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부스 운영을 해보고,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며 직접적으로 부산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영어권이 아닌 나라들을 가는 것이기에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현지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학생들도 꽤 있었고, 영어를 사용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게 있어 생각했던 것보다 수월하게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학연수도 다녀와 보고 현장실습, 봉사 등을 하면서 나름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외교단 활동은 준비 과정부터 참여하여 부스를 운영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등 모두 처음 해보는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도 겪어보며 다음 부스를 운영할 때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 문화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것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보고, 필드워크를 통해 현지에 대한 지식을 쌓은 것도 또한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시차와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 컨디션 관리가 힘들어 잠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나름 힘든 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외교단 활동을 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또 열심히 준비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활동을 통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해 나가며 배운 점이 많고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교단 활동을 준비한 수개월 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단원 후기
005

김주하 단원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활동의 시작점이었던 부산역에서의 첫날, 예상보다 훨씬 큰 활동 규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출정식에서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단원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모두가 협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와 설렘이 더해졌습니다.

부스를 운영하며 현지 학생들과 나눈 다양한 대화는 무척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저보다도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식을 가진 학생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자부심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관심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필드워크 활동을 통해 처음엔 서먹했던 단원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모든 단원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덕분에 팀워크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해외에서 직접 부산을 홍보하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교류하며 같은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활동과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한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 더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단원 후기
006

박가영 단원

저는 국립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국제개발협력학 전공 3학년에 재학 중인 박가영입니다. 2024년 9월 20일부터 10월 2일까지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일원으로서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그리고 UAE 두바이를 방문하며 외교 활동과 부산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공 지식과 실무 역량을 넓힐 수 있었으며,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산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관련 자료 제작과 현지 활동을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발생했습니다. 분실된 홍보 물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부스 운영에 필요한 책상이 부족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 담당 기관과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유연하게 대처했고, 무사히 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방문 도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사마르칸트입니다. 저는 문화유산 ODA 사업이 진행 중인 아프로시아 박물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한국의 개발협력 활동이 실질적으로 가져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책이나 문헌으로만 접했던 ODA 사업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 경험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사마르칸트의 현지 학생들 앞에서 도시의 역사, 문화, 경제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은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안겨 주었지만, 이를 통해 문헌 조사, 인터뷰, 자료 취합 및 정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발표 후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구르 아미르"를 탐방하며 조사했던 유적지를 직접 경험해 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구르 아미르 탐방 중 TPO 사무총장님과 단장님 앞에서 유적지에 대한 정보를 설명 드리는 기회를 만들어주셨는데 현지 학교에서 발표하는 것 보다 더 떨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우즈베키스탄 방송사에서 인터뷰한 것, 체육대회 등 사마르칸트에서 많은 추억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전공 수업에서 배운 도시외교, 공공외교의 일부분을 실제로 경험하며 이론적 지식에 실무적 감각을 경험하게 해준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세종학당과 한국어교육원을 방문하여 교육 ODA 협력의 현장을 방문한 것은 ODA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주신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과 부산광역시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인간관계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를 대하는 법을 배우게 해준 부산 홍보 활동, 기억에 남을 만큼 아름다웠던 4개 도시들까지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며 수기를 마칩니다. 모두 해뻬해뻬하셨으면 합니다!!



단원 후기
007

박서윤 단원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며, 모든 순간이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원하기 전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두바이와 같은 낯선 국가들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있었지만, 도전이 저의 세상을 넓혀줬다는 점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망설임 속에 머물기보다 이번 활동이 제 인생을 확장시켜줄 것이라는 확신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출국 전, 단원들과의 사전 모임을 통해 부산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유학생 유치에 위한 아이디어를 고민하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외교단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정식 날이 다가오자 두근거림에 실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와 삼각대 등 장비를 등에 매는 순간에서야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으로서의 책임감과 무게감이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개인 짐뿐만이 아니라 부스 운영을 위한 물품들과 각종 상품들, 홍보 책자들과 촬영 장비까지 단원들 모두가 짐을 옮기느라 고생하였지만 다같이 땀을 흘리며 단원들끼리의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전 준비를 위해 수도 없이 찾아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모습은 사진과 동영상보다도 더 훨씬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한류의 열풍은 매우 강렬하여 한국인인 저보다도 K-pop을 더 잘 알고 웃으며 즐기는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새로운 문화를 알아갈 때는 몰랐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며 이렇게 또 제 세상을 확장해감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저는 촬영을 진행하며 우리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이 열심히 활동을 임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토크 콘서트나 부스 활동을 체험하는 현지 학생들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진심으로 부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각종 체험들을 즐기는 모습에서 철저히 준비한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두바이에서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을 때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한류의 열풍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부산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직접 발로 뛰며 홍보 포스터를 나누어주고,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며 부산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며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힘들었지만 흘린 땀만큼 부산 홍보와 제 개인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끼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라면 절대 못 해보았을 이 경험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단원들과 함께 보냈기에 더욱 소중한 값진 시간들이라 생각합니다. 11박 13일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모두들 너무 고생하셨고 사랑합니다!

단원 후기
008

손지민 단원



도시외교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도시 간 협력과 문화 교류가 외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외교단으로써 다른 국가 학생들을 직접 만나며 직접적인 유대감과 이해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저도 다른 도시들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배움과 영감을 얻었습니다.

여러 해외 도시 친구들과 만나며 부산과 한국의 아름다움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부산을 알리는 도시외교 활동을 통해, 부산의 매력과 가능성을 세계에 전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산의 역사, 문화, 관광 명소를 소개하면서 부산의 특별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운대 해변과 광안대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자갈치 시장과 같은 명소를 설명할 때, 그들의 반응에서 부산이 가진 매력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POP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로 따라 부르며 춤을 추는 것을 직접 보니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이번 도시외교단 활동은 또한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외교는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도시 간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외교단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은 개인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원 후기
009

신민기 단원



제가 처음에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새로운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많은 걱정과 기대를 했지만 이번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활동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도시외교단으로서 현지인들과 깊이 교류하고, 각 도시의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직접 그 도시를 경험했습니다. 현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고, 그들과의 대화와 행사에 참여하며 유라시아 도시들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제적 관계의 중요성과 도시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교류의 가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지에서 받았던 따뜻한 환대와 사랑은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활동은 다양한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동시에, 글로벌 마인드셋을 갖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현지인들과의 문화 차이와 소통 장벽을 극복하는 과정이 때때로 어려웠지만, 이로 인해 배운 점은 더욱 컸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도전 과제를 이겨내고 나니 자부심과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실상 체력적으로 부담이 큰 일정이었지만 팀원들과 단 한번의 충돌없이 소화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활동은 저에게 큰 자부심과 더불어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받았던 관심과 애정은 그만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기회가 있으면 꼭 다시 참가하고 싶습니다.

단원 후기
010

황지민 단원



안녕하십니까. 9/20(금)~10/2(수)까지 진행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외교단원으로 참석했던 부산외국어대학교 호텔컨벤션학과 황지민입니다. 제가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각 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와 같은 국제 행사에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이 서포터즈나 행사 관계자로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외교 행사와 활동에 대한 흥미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저는 부산 청년 외교팀의 일원으로 부산 홍보, K-컬처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레크리에이션 기획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SNS와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통해 유학생 유치 활동도 진행했으며, 우호 협력 도시 기념행사 중 부스 운영을 통해 부산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활동 중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두바이 등에서 경험한 K-POP과 K-Culture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은 저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체감하며 더욱 열정적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와 외교를 직접 경험해보았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문화에 대한 존중과 리더십, 책임감 등 많은 것을 깨닫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이 국제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모든 일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얻은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한 모습의 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일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주시고, 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공적인 도시외교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참석하고 싶습니다. 관계자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단원 후기
011

정홍인 단원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14기 정홍인입니다.

저는 2023년도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일정 중 프랑스 파리에서 짧게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부산 홍보를 목적으로 참가했으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관계자분들께서 준비를 담당해 주셨고, 동아대 태권도 시범단은 태권도 공연만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 공연 외에도 다양한 체험으로 부산을 알리고 싶었던 아쉬움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이라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셨고 작년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후회 없는 홍보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올해는 학생들이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동아대 태권도 시범단은 공연, 부스 체험, 체육대회 등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두바이 모두 좋은 반응 속에서 무리 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 중 다치거나 실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른 도시외교단원분들이 준비한 포럼 발표, 부스 체험, 노래 공연 등도 인상 깊었습니다. 부산이라는 멋진 도시를 세계에 알리며, 외국인들이 부산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언어와 문화는 많이 다르지만 앞으로 더욱더 원활하게 발전하고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완벽한 공연과 부스를 준비하기 위해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마무리를 웃으며 끝낼 수 있었던 점이 정말 기쁘고, 후회 없이 하고 왔기 때문에 더욱 뿌듯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밝아질 부산의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그때까지 부산 시민으로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부산을 응원하고 알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부산 파이팅!



단원 후기
012

강동근 단원

이번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에 참여한 단원 강동근입니다.

맨 처음 이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마냥 해외에 가는 것도 좋긴 좋았지만, 좋은 기회를 얻은 만큼 잘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부산,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전공하고 있는 태권도를 세계 곳곳에 널리 알릴 수 있기에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태권도 연습만 할 게 아니라 각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많아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고 준비기간도 짧았던 편이라 가기 전까지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준비하다 보니 금세 출정식 날이 되었습니다. 출정식 당일엔 날씨도 덥고 장소나 상황들이 시범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보니 태권도 팀 단원들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도 나오고 했지만 다친 사람 없이 잘 마무리하였고, 처음 보여드린 시범에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받으니 해외에 가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지에 도착하여 시범도 여러 번 하고 부스 활동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현지 분들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도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부스에 방문해주시고 함께 사진 찍자고 하는 모습들이 활동하면서 가장 좋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 공연을 하면서 현지의 반응을 느끼니 한국에서 시범했을 때와 또 다른 기분이 들었고, 해외에도 태권도 시범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어서 제가 하고는 있는 일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의도치 않게 시범 공연을 많이 하게 되어서 단원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조금씩 있었지만,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단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태권도 팀이 아닌 단원들도 홍보 활동과 행사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진지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존경스러웠고, 다 같이 친목을 도모하여 사이 좋게 활동을 마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겪지 못할 뜻깊은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 좋았고,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힘 써주신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단원 후기
013

곽금주 단원



반갑습니다! 저는 동아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곽금주입니다.

저는 도시외교단에서 다른 선배들과 함께 태권도 시범을 통해 해외에 태권도와 부산을 홍보하였습니다. 저희는 알마티가 아닌 우즈베키스탄 일정부터 참여하게 되었는데 일정을 지나면서 알마티에서도 함께 하여 부산과 태권도를 더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처음으로 간 곳은 타슈켄트에 있는 세종학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세종학당에서 현지 학생들에게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고 홍보를 하면서 학생들과 친목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타슈켄트에서의 나날을 뒤로 한 채 기차를 타고 사마르칸트로 넘어왔는데 사마르칸트의 밤이 생각보다 추워서 놀랐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도 태권도 시범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좋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뿌듯했고 태권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외였던 점은 현지 학생들의 한국어 구사력이 매우 높았던 것이었습니다. 도시외교단으로 출발하기 전에는 현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와서 보니 다들 한국어를 잘하시고 한국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의 서울이나 인천은 많이 알고 방문 경험도 있지만 부산은 잘 모르거나 알지만 와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 좀 더 많아지고 널리 알려져서 부산이라는 곳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교단에서 마지막으로 간 곳은 두바이인데 두바이에서의 태권도 시범이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 페스타 in 두바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을 홍보하는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부산을 홍보하면서 동시에 태권도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뜻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교단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과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공유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외국 사람들이 태권도와 한국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활동을 가기 전에 많이 힘들다는 말을 들었지만 “얼마나 힘들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 정말 힘든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모든 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고 태권도와 부산을 직접 홍보하고 왔다고 생각하니 뿌듯한 마음이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좀 더 많은 준비와 연습을 통해서 태권도를 더 많이 보여주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단원 후기
014

김건하 단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대학교 태권도학과 20학번 김건하입니다. 2024년 9월 20일에 출발한 학생 외교팀과 다르게 저희 태권도 공연팀은 23일에 출발하여 좋은 컨디션으로 우즈베키스탄에 갈 수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세종학당 방문과 부스 운영 그리고 시범 공연까지 한국에선 경험해 볼 수 없는 외국인들과의 교류와 시범 공연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즈베크의 음식이 맞지 않아 장염으로 많이 아팠지만, 부산시 관계자분들과 동아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챙겨주신 덕분에 다음 공연 준비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르칸트 국립외국어대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현지 대학교 학생들과 소통이 안 될까 봐 우려했지만, 참여한 학생들의 능숙한 한국어 실력으로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현지 대학생들에게 한국의 많은 놀이와 문화를 알려주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즈베크에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일정을 보내고 두바이로 새벽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두바이에서의 시범을 진행하기 위해 하루 휴식을 취하고 가장 큰 공연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시범 당일 두바이 페스티벌 시티몰 앞에서 시범 준비 환경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습하고 덥고 모두가 예민해지는 날씨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묵묵히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대망의 마지막 공식 시범을 성공적으로 선보였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공연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으로 부산시의 대표로 유라시아 외교단에 선정되어 우즈베키스탄과 두바이에서 부산을 알릴 기회를 얻고 동아대학교 대표로서 태권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서 한국과 다른 문화를 접하는 동시에 한국의 문화와 부산을 알릴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겨서 학교 후배들이 가서 좋은 경험을 쌓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관계자분들과 동아대학교 교수님들 저희 유라시아 외교단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부산을 알리고 한국을 알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단원 후기
015

김동혁 단원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16기 김동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태권도 팀은 동아대학교 총장기 시범으로 다른 단원들보다 늦게 합류하였습니다. 저희의 첫 일정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타슈켄트1 세종학당에서 태권체조 시범을 선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타슈켄트 한국 교육원에서 열렬한 반응과 함께 타슈켄트 지역에서의 태권도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한 후 사마르칸트에 갔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는 사르크울두즈 극장 앞에서 태권도 버스킹 시범과 태권도 부스 활동을 진행하고 극장 안에서 영화 상영 전 태권체조를 짧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음날에는 부산-사마르칸트 우호 협력 체결 1주년 기념 친선 음악회에서의 부산과 태권도 홍보를 위해 음악 드라마극장에서 태권도 부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마르칸트 국립외국어대학교에서는 태권도팀이 많은 공을 들였던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사마르칸트 필드워크를 마친 후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로 향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두바이 페스티벌 시티몰 앞에서 우리 태권도 팀의 시범 공연을 진행하고 부산 홍보를 위한 무대들과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렇게 긴 여정을 함께 하며 정말 재밌고 뜻깊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해외에서 부산과 태권도를 모르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우즈베키스탄 사람들과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은 태권도는 잘 알지만 부산은 어디 있는 지역인지는 잘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한국 하면 다들 서울이나 인천만 알고 다른 지역들을 잘 모른다는 것이 약간 속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활동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한국 하면 서울보다 부산이 먼저 떠오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태권도를 통해 부산 홍보에 함께 힘을 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조금 빡빡하여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들이 생긴다면 더 열심히 홍보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서 도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단원 후기
016

김창욱 단원



이번에 운이 좋게 유라시아 도시 외교단 단원으로 뽑히게 되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다. 출국 하기 전 OT 때에 조금 빡빡하게 짜여있는 스케줄에 대해 들었지만, 출국 당일에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하였을 때부터는 일정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었던 것 같다.

OT 때 들었던 대로 밤늦게까지 활동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정을 시작하는 게 너무 피곤했다. 하지만 두 개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현지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고 애정도 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서툴긴 해도 한국어를 다 할 줄 알았던 게 정말 신기했다. 또한 부산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것 또한 놀라웠다. 유라시아 도시외교 단원이자 태권도 전공으로 행사를 진행했을 때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좋아해 줘서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이런 좋은 경험들이 말할 것도 없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두바이에서 진행했던 부산 페스타 in 두바이 행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다. 마냥 좋아서만 기억에 남는 것보다 더운 날씨에 대기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팀원들 다 같이 힘을 내어 준비한 것이 뜻깊었던 것 같다. 여태까지 시범을 해왔던 것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많은 이들이 태권도에 관심을 가지고 보러 와준 것 또한 기억에 남는 이유인 것 같다.

단원 후기
017

박인호 단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원이자, 동아대학교 태권도학과 19학번 시범단 박인호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시범단 단원들과 같이 시범을 준비하면서 타지로 나가 태권도를 알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설레고 많이 기대하였습니다. 처음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태권도 시범을 직접 선보이며 태권도를 알리고 한국과 부산을 알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는 현지 학생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 활동을 준비 단계부터 기획, 메인 진행까지 도맡아 하였는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너무 재밌어해 주시고, 많이 부족한 진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두바이에서는 이 도시를 평생에 올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하여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대학교 마지막 4학년에 도시외교단 활동을 통하여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또한 이 도시외교단 활동이 살아가면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단원 후기
018

서장호 단원

2023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에 이어서 이번 9월 23일부터 10월 2일동안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2023년도와는 달리 8박 10일의 긴 여정 동안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및 동아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으로서 부스 운영, 태권도 시범 공연을 통해 태권도를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두바이에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흔하지 않은 기회를 주신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동아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외교단 활동을 하면서 제 생각보다 외국에서 태권도의 인기가 많다는 것을 느꼈고, 더 열심히 태권도와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스 운영에 있어서도 격파체험, 도복 체험, 촛불 끄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태권도를 통해 외국인과의 교류를 느낄 수 있어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는 다른 배경, 분위기 속에서 태권도 시범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에 매우 좋았고, 더 값진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이해우 총장님, 신정택 회장님을 비롯해 교수님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단원 후기
019

하준 단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추진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사업에 단원으로 참가하여 대한민국 부산을 알리고 부산 지역의 대학교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 마크를 가슴에 달고 팔에 태극기를 붙임으로써 대한민국 부산을 대표하여 해외에 나간다는 게 엄청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팀은 우즈베키스탄에서부터 합류하게 되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일정에 없던 버스킹 시범에 많이 당황하며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출국 전부터 많이 힘들고 빡빡한 일정이라고 들었지만, 일정도 수시로 바뀌며 단원들의 피로도도 많이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원들과도 더욱더 친해지고 끈끈해지며 힘든 일정 속에서도 서로 기대며 힘이 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정을 소화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살면서 방문해 보기 힘든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 등을 직접 방문하여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고 해외에서 태권도와 부산을 홍보하는 활동에 제 전공이 도움이 되어서 자부심이 생기는 일 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이 이번에 있었던 단점들을 잘 보완하여 내년 내 후년에는 더욱더 뜻깊고 세계에 한 발 더 뻗어 나가는 도시외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 후기
020

이용국 교수

동아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을 인솔해서 참가하는 두 번째 도시외교단 활동, 2023년의 첫 번째 활동 때와는 또 다른 설렘이 있었다. 2024년 9월 20일, 유라시아의 출발역인 부산역 맞이방, 이른 아침부터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 공간에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동아대학교 총장기 태권도 대회 운영으로 본대와 함께 일정을 시작하지 못하고 9월 23일 시범단원을 인솔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 출발하였다. 본대 합류를 위해 도착한 세종학당에서는 즉석에서 결정된 K-Pop 댄스 위주의 시범 공연이 진행되었고, 현지 학생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시범단원과 현지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K-pop 댄스를 추는 모습을 통해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문화의 힘을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9월 24일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에서 진행된 Busan is Good for Study! 부산 유학생 유치 설명회에서 부산지역 대학의 유학생 유치 홍보 활동 차원의 태권도 시범과 태권도복 입기, 조립식 기와 격파, 풋볼 끄기 등의 체험 부스 운영을 통해 학교 홍보를 넘어 태권도와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타슈켄트의 일정을 끝내고 열차로 사마르칸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행사의 열차표 예매 실수로 인해 본대와 떨어져 이동하는 추억도 경험할 수 있었다. 사마르칸트에서의 첫 일정은 사마르칸트 국립외국어대학교에서 사마르칸트와 부산지역 대학의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 같다. 사르크울두즈 극장 앞에서의 버스킹 공연, 사마르칸트주 음악극장에서의 시범, 사마르칸트 현지 학생들과 도시외교단 학생들과의 한마음체육대회 등 많은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몇몇 학생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인솔자로서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태권도시범은 다양한 도약과 회전 동작이 이루어지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상의 위험을 갖고 있어, 나의 걱정은 더욱 컸던 것 같다. 타이트한 행사 일정에 도시외교단 단원들이 하나, 둘 체력적으로 부담을 갖는 모습들을 보며, 행사일정의 조율이 필요함을 나 또한 몸으로 체감하고 있었고, 나 역시 음식 문제인지, 식수의 문제인지 모르는 배탈증상이 시작되어 사마르칸트에서의 일정 마지막 즈음은 조금 힘들었던 것 같다.

동아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을 비롯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현지 학생들의 부산 유학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청년외교단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특히 두바이에서 열린 'Busan is good for you 부산페스타 개막식'에선 화려한 시범 공연으로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것 같다.

2016년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24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으로 이어져 더욱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활동은 부산이 진정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으며, 특히 청년들의 활발한 참여로 미래지향적인 도시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의 말씀처럼, 이번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활동은 부산의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민간 차원의 도시외교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단원 후기
021

이상호 교수

열정과 기대감으로 참여한 부산외교사절단(학생인솔) 너무 긴 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였지만 뒤 돌아 보니 너무 짧은 일정으로 느껴진다.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그리고 학교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 속에 부산대표로 우리 학생들이 외교단으로 참여할 수 있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우즈베키스탄과 두바이로 외교단 활동을 다녀온 경험들이 학생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관계자들과 교류를 통해 부산의 매력과 가능성을 알릴 수 있었고, 서로의 문화와 경제적 잠재력을 공유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문화를 통해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K문화, K-POP, 태권도, 다양한 부스운영 등 언어와 생김새는 달라도 문화를 통해 서로 간 친밀감과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었고, 부산 페스타를 통해 현지인들의 뜨거운 열기와 열정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먼 이국땅에서 'Busan is good'이라는 LED 전광판이 큰 건물에 나타났을 때는 부산의 자부심과 정말 부산의 외교사절단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성공적인 일정을 통해 글로벌 허브로서의 위상을 직접 체험하였고,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번 외교단 활동을 통해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부산이 세계와 더욱 긴밀히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일정을 진행하는 동안 정채숙 단장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고생하였습니다. 특히, 전미경 팀장님과 손희승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단원 후기
022

구영아 부산시 국제협력과 국제도시협력2팀장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제가 두 번을 가게 될 줄은... 외교단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람되고 의미있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준비과정의 험난함과 고단함을 지난 해에 이미 겪어본 저이기에 두 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1박 13일의 일정을 마치고 보니, 역시나 감사함, 또 감사함, 다시 감사함... 올해 외교단 활동도 역시나 감사함의 연속입니다.

우선, 먼저 감사하고 싶은 분은 우리 19명의 청년단원들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청년외교활동에 무게를 더 많이 두었고, 그에 따라 활동내용과 범위가 부산홍보부스 운영, 청년포럼, 체육교류활동, 공연 등 훨씬 넓고 다양했는데, 힘든 내색, 아쉬운 불평 없이 사전준비부터 본행사까지 성공적으로 만들어준 우리 청년단원들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리더의 정석을 보여준 단장님. 13일의 일정을 무사히 마쳐야 한다는 부담이 분명 있으셨을 텐데, 다정한 말투와 미소로 단원들을 격려하고, 어디 아프거나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고, 운영진의 실수도 조용히 알려주시는 센스까지 겸비한,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때로는 상사처럼, 진정한 어른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로벌도시재단 팀장님을 비롯한 운영진들, 빠뜨릴 수 없습니다. 13일간의 일정이지만, 그 13일동안 42개의 행사를 해내야 했습니다. 일년동안 할 일들을 단기간에, 그것도 해외에서 해내야 하니 얼마나 험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을 것이며, 그 과정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함께 준비하면서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이 글을 빌어 새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올해 외교단 행사의 출정식을 멋지게 만들어준 모든 분들, 부산역 관계자분들. 그 분들께는 어쩌면 번외의 일이었을 터인데, 아직은 더웠던 9월 말, 땀 뻘뻘 흘리며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리 외교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해 주신 우리지역 대학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과 비록 현지에서 함께 하지는 못했어도 이런저런 실무로 분주하셨을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는 처음 맡은 일이라 올해보다 더 정신없이 흘러갔었고, 함께 했던 분들께 제대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 올해는 마음먹고 마음을 전합니다.

어떤 일을 맡더라도 쉽게 그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또한 그런 일 중 하나이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서 무한 감사의 마음이 제 마음을 채워주는 감사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을 출발하여 유럽까지 육로로 연결되는 그날을 위해 우리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이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좀 이르지만,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미리 파이팅입니다.



단원 후기
023

우혜진 부산시 국제협력과 국제도시협력2팀 주무관



도시외교단의 출정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기에 사업을 맡아, 낯선 도시로의 협조 서한 송부로 도시 외교 업무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중동아랍국가는 개인적으로 너무 생소한 지역이라 많은 인원과 함께 간 낯선 현지에서 무언가 문화적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글로벌도시재단에서 이미 축적하고 있는 네트워크와 추진력은 기대 이상이었고, 행사는 숨 가쁜 와중에도 착착 준비되어갔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기획력과 네트워크 파워, 삶 전체를 내던지는 듯한 헌신을 보여주신 재단 직원분들이 있었고, 42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행사를 치러내기 위한 엄청난 짐과 쉴 틈 없는 일정을 묵묵한 책임감으로 소화해낸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믿음직하고 훌륭한 청년단원들이 있었으며, 이들을 단아하고 강인하며 따뜻한 리더십으로 이끌어주신 정채숙 단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각국 재외공관, 현지 유관기관과 시청 관계자들, 특히 크게 환영하며 맞아주신 사마르칸트시는 큰 감동과 고마움을 주었습니다.

자매-우호 도시 외교 네트워크를 다지고 우리 외교단을 격려하기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달려와 주신 행정부시장님, 긴 여정을 중간중간 보석처럼 빛내주신 영화의전당, 문화회관의 시립합창단과 국악관현악단, 동아대 태권도 시범단, 대학 관계자들과 TPO 등 모두에게서 부산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들이 함께한 부산시의 7번째 유라시아 도시외교단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나는 정말, 럭키비키잖아~!!

열심히 땀 만큼 잊지 못할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더욱 참신하고 성공적일 내년을 그려봅니다.

단원 후기
024

전미경 부산글로벌도시재단 팀장

어떤 열매를 수확할지를 고민하고 양질의 토질과 파종할 씨를 고르고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햇빛과 물, 영양분을 적절히 배분해 뿌리와 줄기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두고 시간이 흘러야만 달고 맛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해외도시를 상대로 하는 국제교류 사업은 더욱더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상호 간에 관습, 문화 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하는 일이라 때론 이해되지도 않고 어렵기도 합니다.

3년 전 양질의 토질에 뿌려놓은 씨가 올해 싹을 많이 틔웠습니다. 교육, 문화예술, 영화영상, 관광 분야에서 MOU 체결 등을 통해 앞으로 각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현지에서는 유학생 유치 설명회와 패기 넘치는 부산 청년들의 큰 활약으로 청년교류, 부산홍보 등 큰 성과를 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싹을 틔울 수 있게 도와준 햇빛과 물, 영양분들은 사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존재는 결국 '사람'입니다. 15개 기관 158명 42개 행사를 위해 단원의 선두에 서주신 정채숙 단장님의 리더십 덕분에 계획대로 성공리에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생 유치만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전 세계를 넘나드는 8개 대학의 관계자분들, 부산의 우수 문화 콘텐츠 전파를 위해 기꺼이 나서 준 영화의전당, 부산문화회관, TPO 관계자분들, 매년 경제 분야를 책임져주는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해외 한국공관 분들, 유관기관 분들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묵묵히 지지해 주신 대표님, 더운 날 쉬는 날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성의를 다해 고민하고 준비한 우리 팀원들, 부산 시 국제도시협력2팀장님과 주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성의껏 도와주는 분들 덕분에 잘 틔운 싹이 내년에도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 달고 단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원 후기
025

손희승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차장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여정을 갈무리하며

지난 2016년, 나의 신입사원 시절부터 시작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과의 여정은 개인적으로도, 유라시아 관문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에게도 아주 큰 도전이자 성취였다. 매년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평소 방문하기 힘든 여러 나라(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UAE 등)를 방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산과 한국을 널리 알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매년 하는 업무지만 참 쉽지가 않음을 느낀다. 방문지 선정과 행사기획, 사전답사, 참가자 선발 및 교육,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해나감과 동시에,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선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의 혼자 힘으로 절대 해낼 수 없는 만큼, 국내외 무수히 많은 기관들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며,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여러 사정으로 틀어질 때 느껴지는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행사명이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으로 바뀐 원년인 만큼 도시외교단의 기능에 충실하여 가장 큰 성과를 내고 돌아온 것 같다. 부산지역 8개 대학교가 힘을 합쳐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부산의 예술문화 전문기관인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이 함께 동행하여 현지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부산시립예술단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와 UAE 두바이에 파견되어 부산 예술의 맛을 알렸다. 이외에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무역사절단, 물류개척단을 두바이에 함께 방문하여 활동을 하고,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TPO)가 외교단 동행을 통해 회원도시로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가입시킨 것 또한 큰 성과다.

이처럼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여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으로 나아가고 부산의 미래인 대학생들이 시야와 견문을 넓히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외교단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단장님, 학생단원들, 유관기관 관계자, 운영진 등 모든 참가자 분들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단원 후기
026

조예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리

Busan to the World!

낮선 도시, 낮선 환경, 낮선 언어, 하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했던 사람들!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일원으로 첫 목적지였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현지인들에게 부산의 매력을 전하며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외교단원들의 활동을 내 목소리로 직접 방송을 통해 전달하니 그 여정이 한층 더 특별하게 다가온 것 같다.

첫날부터 현지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활동을 통해 양국의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에서 펼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에서는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할 기회를 가졌으며, 양 도시 간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특히, 부산의 대학생들이 직접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부산다움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 깊게 담겼다.

이러한 순간들을 부산영어방송 라디오 및 유튜브 연결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활동을 생생하게 부산 시민과 청취자들에게 전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고,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반응과 도시외교단의 노력이 방송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부산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도시외교 활동을 통해 부산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존중과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껴 본 계기가 되었다. 현지인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부산과 우즈베키스탄이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낯설었던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현지 분들과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단원 후기
027

이민아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리

부산글로벌도시재단에 입사한 지 2개월, 그 짧고도 긴 시간 속에서 저는 인생의 첫 출장을 맞이했습니다. 설렘과 긴장,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맡았던 업무는 부산 유학생 유치 설명회 및 간담회 운영지원과 대학 관계자분들의 인솔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를 가진 일이었습니다. 세상 물정에서 둔 신입사원으로서 제가 이 여정에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으며 고민의 밤을 보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순간부터 업무는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몰아칠 때마다 마음은 쉬지 않고 흔들렸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눈물이 고였고,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자책이 제 어깨를 무겁게 내리누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아나갔습니다. 그 다짐 하나로 혼란 속에서도 작은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따뜻한 햇살처럼 마음을 녹였던 건 함께한 분들이었습니다. 대학 관계자분들께서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챙겨주신 순간들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진심 어린 격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팀장님과 차장님께서서는 흔들리는 저를 조용히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묵묵히 제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함께 하는 여정 내내 저를 아껴주시고 도와주신 팀장님과 차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에서의 시간은 마치 바람과 함께 스쳐 가는 계절 같았습니다. 분주하고 숨 가뻔했지만, 그 속에는 감동과 따스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저는 작은 싹이 돌아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분들의 배려와 가르침 덕분에 저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여정을 저만의 새로운 첫 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의 일원으로서 더 넓은 세상을 품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몇 달 동안 도시외교단 활동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쏟아부은 청년외교팀원들, 부산시와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 현지에서도 함께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가기관 및 대학 후기
001

글로벌도시 관광진흥기구(TPO)

한아름 선임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일원으로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7일간의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이번 2024년 도시외교단 활동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바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TPO 회원 가입입니다.

이 면을 빌어 많은 도움을 주신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의 전미경 팀장님, 손희승 차장님, 김보하 대리님 그리고 이민아 대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산시 외교과의 구영아 팀장님, 우혜진 주무관님 그리고 김자영 통역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채숙 단장님께서 이끄시는 외교단 활동을 함께하며 기관 차원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체감하기 어려웠던 한국문화의 힘을 해외에서 실감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과장이 조금 더해진 표현일 수 있지만, 정말로 한 시간에 한 명씩 한국어로 말을 걸어오는 현지인을 만날 정도였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그 한가운데서 한국 음악과 춤, 영화 그리고 태권도 같은 무술을 전파하고, 그 과정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강행군 일정 속에서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행사마다 최선을 다한 단원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 관 명 글로벌도시 관광진흥기구(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Global Cities)

기관소개 2002년에 개최된 제5회 아시아·태평양도시시서미트가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세계 주요도시 간 교류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

참가기간 2024. 9. 22.(일) ~ 9. 28.(토), 5박 7일

방문도시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사마르칸트

- 추진사항**
- 유라시아 네트워크 확대: 알마티 기구 회원가입
 - 신규 회원도시 유치를 위한 면담 등 기구 세계화 관련 활동
 - 현지공관 방문 및 도시외교단 활동 등

참가기관 및 대학 후기
002

(재)영화의전당

김진해 대표이사, 이승진 영화예술본부장

기 관 명 (재)영화의전당

기관소개

영화의전당은 매일이 영화제, 매일이 축제라는 슬로건처럼 영화, 공연이 365일 펼쳐지는 복합문화공간이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전용관으로써 위상을 지닌 부산의 랜드마크이다. 영화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 등 시민의 적극적인 문화 참여를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참가기간 2024. 9. 20.(금) ~ 9. 27.(금)

방문도시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사마르칸트

- 주요내용**
- 부산영화 글로벌화를 위한 부산영화 상영회 개최
 -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기관 카자흐필름, 우즈베크필름과 비즈니스 미팅



1. 부산영화 글로벌화를 위한 부산영화 상영회

카자흐스탄 상영회

일 시 : 2024. 9. 21.(토) 17:00
장 소 : 알마티 한국교육원
상 영 작 : 다우렌의 결혼
참여인원 : 200여명

우즈베키스탄 상영회

일 시 : 2024. 9. 25.(수) 16:30
장 소 : 사마르칸트 샤희크울두스 극장
상 영 작 : 리바운드
참여인원 : 300여명

주요실적 및 성과

2. 부산영화 글로벌화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카자흐필름(Kazakhfilm) 업무협약

일 시 : 2024. 9. 21.(토) 09:00
장 소 : 카자흐필름 홀
협약내용 : 영화제작 분야 전문가 교류 증진,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상호지원, 영화분야 공동체 확대를 위한 교류증진, 축적된 경험 상호 교류

우즈베크필름(Uzbekfilm) 업무협약

일 시 : 2024. 9. 24.(토) 10:00
장 소 : 우즈베크필름 홀
협약내용 : 영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교류증진, 영화교육 등 상호간 프로그램 개발협력, 민간분야 협력 및 교류증진, 축적된 경험 상호 교류

참가기관 및
대학 후기

003

(재)부산문화회관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에 참여하며 부산문화회관은 한국 문화의 깊이를 세계에 전하고, 감동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마르칸트와 두바이에서의 공연은 한국 전통예술의 섬세함과 현대적 창의성을 융합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현지 문화와의 교감 속에서 우리는 한국 문화의 확장이 어떻게 새로운 감동과 연결을 만들어내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한국 문화가 단순히 경계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음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기관명 (재)부산문화회관

기관소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은 2017년 1월 1일 공식출범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부산의 대표 공연장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이 운영하는 '부산문화회관'은 1988년 대극장 준공을 시작으로 1993년 전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대극장(1,409석)'과 '중극장(777석)' 그리고 어린이 전용극장인 '사랑채극장(312석)'과 클래식 전용극장인 '챔버홀(410석)'을 운영하여 다양하고 가치있는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민회관'은 1973년 개관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의 대표 공연장입니다. 대극장(1,606석)과 소극장(385석)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공연과 문화행사로 시민들의 문화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가기간 2024. 9. 24.(화) ~ 9.26.(목) / 9. 28.(토) ~ 10. 1.(화)

방문도시 사마르칸트, 두바이

추진사항

-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 친선 음악회 공연
- 부산 페스타 in 두바이 개막 세레머니 및 공연 담당

참가기관 및
대학 후기

004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은 이번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을 통해 부산 경제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체감하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현지 기업 및 단체와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부산이 가진 잠재력과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었고,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경제적 연결고리를 형성했습니다. 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넓히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부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한 경제 홍보를 넘어 부산이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기관명 부산경제진흥원

기관소개

부산경제진흥원(BEPA)은 지방자치화시대에 있어 부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중소기업청이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부산소재 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가기간 2024. 9. 28.(토) ~ 10. 1.(화)

방문도시 두바이

추진사항

- 물류개척단 12인 파견
- 무역사절단(10개 기업 11명 구성) 파견

참가기관 및 대학 후기
005

경남정보대학교

김홍길 처장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부산형 유학생 유치에 위한 부산시의 노력과 열정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알마티 한국교육원 협력사업으로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참가 대학의 캠퍼스 투어 등 향후에도 다양한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타슈켄트 및 사마르칸트 지역의 대학 및 유학원(에이전시) 미팅을 통해 한국교육원에서 공부한 학생들 중 부산형 취업 약정 유학생 유치에 대한 관심과 연속사업을 계획하며 향후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학생 유치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덧붙여 요청드리고 싶은 사안은 순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방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 있는 유학생 유치 활동을 함께 이어나가길 건의드립니다.

기관명 경남정보대학교

기관소개 경남정보대학은 “입학이 곧 취업인 대학”이란 슬로건으로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한국형 커뮤니티칼리지 직업교육 맞춤형 전문학사 수여, 59년 역사의 명성에 걸맞게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부산시 지역 산업 수요기반 주문식교육과 계약학과 운영 등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정주형 유학생을 양성하는 취업 선도대학임.

참가기간 2024. 9. 20.(금) ~ 9. 28.(토)

방문도시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사마르칸트

- 추진사항
- 경남정보대학의 취업연계 맞춤형 직업교육 홍보
 - 전문대학 유학생 일학습 병행제 안내
 - GKS정부장학생 제도 안내 및 정부장학생 유치 홍보
 - 유학생 융합학과(전기수소자동차, 호텔관광, K-뷰티)홍보
 - 한국교육원과 연계하는 부산형 직업교육 유학생 유치 홍보

참가기관 및 대학 후기
006

동아대학교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부산시 우수대학들이 알마티와 타슈켄트에서 부산유학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깊은 역사적 연관성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고, 부산의 교육과 문화를 직접 소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타슈켄트 유학 박람회에서는 동아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이 직접 태권도 시범을 보여 한국 문화를 알리고 동아대학교를 홍보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또한, 박람회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K-POP과 한국 드라마 등 한국 문화를 즐기며, 한국 유학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박람회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양국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 같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에 한국과 부산의 문화를 알리고,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행사가 계속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기관명 동아대학교

기관소개 동아대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의 명문사학 최고의 사립대학으로 박물관, 병원, 로스쿨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부산 사립대 중 신입생 총원율 1위를 자랑한다. 40여 개국 338개 해외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50여 개국에서 약 1,900여 명의 유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특히, 동아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약 1,000여 명이 넘는 학생이 수학 중이며 이는 전국 대학 중 6번째 규모이다.

참가기간 2024. 9. 20.(금) ~ 9. 24.(화)

방문도시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추진사항
- | | |
|---|---|
| <p>1. 알마티 부산 유학생 유치설명회 실시</p> <p>일 자 : 2024. 9. 21.(토)</p> <p>장 소 : 알마티 한국교육원</p> <p>참여인원 : 200여명</p> | <p>2. 타슈켄트 부산 유학생 유치설명회 실시</p> <p>일 자 : 2024. 9. 24.(화)</p> <p>장 소 : 타슈켄트 한국교육원</p> <p>참여인원 : 200여명</p> <p>기타사항 : 동아대학교 태권도시범단 공연</p> |
|---|---|

참가기관 및 대학 후기
007

동의과학대학교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활동은 부산의 문화와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대학들과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한국의 문화와 교육 등을 홍보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였고, 이번 외교단 활동으로 부산을 국제적인 허브 도시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의 진정성과 힘이 세계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기관명 동의과학대학교

기관소개 동의과학대학교는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글로벌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산학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가기간 2024. 9. 20.(금) ~ 9. 24.(화)

방문도시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추진사항

- 한국의 전문대학 교육 소개: 전문기술인 양성을 맡고 있는 전문대학의 교육체제 소개와 부산 지역의 부족 산업인력군 양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소개로 유학과 취업 및 정주 pathway 소개
- 전공실무 및 한국어 능력함양을 제공하는 외국인친화형교육과정 소개: 취업 맞춤형 교양, 한국어, 한국문화 및 현장실무교육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소개

참가기관 및 대학 후기
008

국립부경대학교



학생들의 열정과 관심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유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유학에 대한 진지한 열망을 표할 때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인사하거나 질문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점이 대단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한국의 교육과 기술, 문화에 대한 현지 학생들의 깊은 이해와 존경을 직접 목격하면서, 한국의 영향력이 그들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지지 설명회에 함께 온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내고, 대단히 긍정적인 자세로 학생의 한국 유학을 위해 힘써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한국 유학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환영 알마티와 타슈켄트의 한국교육원 관계자 분들 및 유관 기관에서 진심 어린 환영과 협조를 제공해주셔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업무의 담당자로서 업무함에 있어 긍지와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관명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소개

- 대한민국 부산에 위치한 국립대학으로, 1996년 부산수산대학교와 부산공업대학의 통합으로 설립
- 해양수산, 공학,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에 걸쳐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며, 연구 중심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 양성에 노력중
- 특히 수·해양 관련 계열 학문에서의 우수성과 탁월함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참가기간 2024. 9. 20.(금) ~ 9. 24.(화)

방문도시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추진사항

- 중앙아시아 지역 유학 수요 파악, 우리 대학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 과정 홍보를 통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 실시
- 현지 유학 관련 관계자 네트워크 확대

참가기관 및 대학 후기
009

국립부산대학교
양민중 국제처장



아쉽게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일정은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번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한국 문화 확산을 위한 활약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감동적이었다.

직접 방문한 사마르칸트에서는 대학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질 수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부산 유학에 대한 관심이 유의미하다는 걸 확인했다. 직접 방문하지 못한 두 도시에서는 유치 설명회를 도와준 현지 통역원을 통해 우리 대학 유학을 홍보할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직접 우리 대학 학위과정과 한국어 과정을 안내했다.

이번 Study Busan 30K Project 원팀 부산 유학생 유치설명회 참가를 계기로 중앙아시아지역의 우수 인재 유치를 기대해본다.

기관명 국립부산대학교

기관소개 부산대학교는 1946년 5월 15일 설립되어 78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과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는 선도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참가기간 2024. 9. 26.(목)

방문도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추진사항
· 부산 유학생 유치 간담회 참가
· 부산대학교 입학, 외국인 특별전형 홍보

참가기관 및 대학 후기
010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 유학을 꿈꾸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주요 도시이자 부산광역시 우호 도시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방문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한국과 부산을 향한 학습자들의 열정과 꿈을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부산에서 미래를 펼쳐갈 학생들과의 만남이 기대가 되면서도, 향후 부산 지역과 대학 차원에서 시행해야 할 국제 학습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 제반과 정책 제공의 필요성도 함께 체감할 수 있었다.

2024 Study Busan 30k Project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을 수용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공부하기 좋은 실질적인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과 대학의 협업을 기반한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앞으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더 큰 도약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관명 부산외국어대학교

기관소개 세계를 향한 도전 정신과 창의력, 그리고 도덕적 품성을 갖춘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된 대학입니다. 국제화 선도대학, 권역별 우수교육 중심 대학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인증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참가기간 2024. 9. 20.(금) ~ 9. 24.(화)

방문도시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추진사항
· 부산광역시 주관 2024 Study Busan 30k Project를 위한 대학 유학 유치 설명회 참가
· 부산광역시 유라시아 도시 외교단 일정 동행
· 국가별 유학박람회 학생 상담 100건 이상 진행
· 중앙아시아 2025-1학기 입학 1차 지원자 60명 이상 지원

참가기관 및 대학 후기
011

신라대학교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중앙아시아 출신 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중앙아시아는 국제교류 분야에서 여전히 높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차원에서 현지 상황을 직접 체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Study Busan 30k 프로젝트」의 참여하고 현지를 방문한 경험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제교류 담당자로서 안목을 넓히게 되는 매우 보람차고 뜻깊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해주신 부산광역시 글로벌도시재단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명 신라대학교

기관소개 신라대학교는 1954년도에 설립되어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사립대학으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항구도시인 부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4년제 종합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항공대학, 사범대학, 국제대학 등을 비롯한 8개의 단과대학과 58여개의 학과 및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약 1,2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참가기간 2024. 9. 20.(금) ~ 9. 28.(토)

방문도시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사마르칸트

- 추진사항**
-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교육원’ 유치 박람회 참가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세종학당’ 방문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유치 박람회 참가
 -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거점 대학 대상 대학 설명회 참가

참가기관 및 대학 후기
012

영산대학교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일원으로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지역 7개 대학이 한 팀을 이뤄 부산형 유학생 유치 양성 ‘Study Busan 30K Project’를 홍보하고 알마티와 타슈켄트, 사마르칸트에서 부산 유학생 유치를 위한 유학박람회 참가, 타슈켄트 제1세중학당 부산코너 현판식 참석 등 여러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 1주년을 기념하는 친선 음악회 참석 등 부산지역 대학생들과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활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산-중앙아시아 간 교류협력이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되어 많은 중앙아시아 학생들이 부산지역 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기관명 영산대학교

기관소개 WISE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산학협력 기반 교육 명품대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가기간 2024. 9. 20.(금) ~ 9. 28.(토)

방문도시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사마르칸트

- 추진사항**
- 알마티/타슈켄트 유학박람회 참가
 - 사마르칸트 지역대학 관계자 간담회
 -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활동 참여

BUSAN

AMMAN

SALAKO

SHAN

DURA

06

Media coverage

언론보도

Media coverage

주요 언론보도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13일간 3개국 4개 도시 방문

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2024-09-20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20일 오전 부산역 맞이방에서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을 열고 13일간 민간 외교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라시아의 출발역인 부산역에서 청년, 대학 관계자, 문화예술인 등 참가 단원들과 시의원, 기관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대장정의 출발을 알린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이 도시외교단 단장을 맡았고 부산 청년 외교활동으로 '관광·문화·공부하기 좋은 부산'을 직접 홍보하기 위해 대학생 청년 19명이 참가한다.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문화예술단 47명, 경제인단 20명, 영화·관광·교육 분야 21명 등 총 15개 기관 1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일부터 10월 2일까지 ▲알마티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두바이 등 3개국 4개 도시를 방문해 부산 유학생 유치 설명회,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우호 협력 체결 1주년 기념사업, 부산 청년 외교 활동,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 등 41개 행사를 하면서 부산을 알린다.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상과 육상 복합 물류 경로를 통해 도시 교류를 해왔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방문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계획한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모든 단원이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나섰다

| 부산 8개 대학과 함께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설명회' 열어

매일신문 김동식 기자 2024-09-29



부산시는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지역 8개 대학과 함께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에서 '부산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일 부산을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두바이까지의 민간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성과다.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설명회'는 시와 재단, 부산 지역 대학이 한 팀을 이뤄 '스터디(Study) 부산(Busan) 30케이(K) 프로젝트(Project)'에 동참함으로써 대학별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현지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향후 유학생 유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터디 부산 30K 프로젝트'는 청년인구 유출과 생산인구 감소 등을 막기 위해 '유학하기 좋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을 비전으로 지난 3월 시가 발표한 부산형 유학생 유치양성 방안이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 유학생 수 1만2000명, 이공계 비율 12%, 취업구직 비자 전환율 22%를 오는 2028년 각각 3만명, 30%, 4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팀으로 참여한 대학은 ▲부산대 ▲국립부경대 ▲동아대 ▲부산외대 ▲신라대 ▲영산대 ▲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 등 8개 대학이다.

참가자들은 현지에서 학교 소개, 부스 상담회, 청년토크콘서트 등의 활동을 펼쳤다. 2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교육원을 시작으로, 24일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에서 각각 설명회를 가졌다. 이어 27일에는 사마르칸트 실크로드 국제관광문화유산대학에서 양 도시 대학 관계자 교류회를 열어 유학생 유치 활동을 마무리했다. 행사장에서는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청년단원들의 부산홍보 부스도 운영하고 태권도 시범도 함께 진행하는 등 현지 학생들의 부산 유학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청년외교단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특히 21일에는 재단과 알마티한국교육원이 교육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는 앞으로 카자흐스탄의 부산 유학생 유치 확대와 양 도시 간 인적 교류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활동을 통해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부산의 대학들이 한 팀이 돼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에 직접 나섰다"며 "부산 대학의 특성과 '공부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잘 알려 향후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이 부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행사’ 개최

| 9.25.-26. 양일간 우즈베키스탄 제2의 도시이자 문화 수도인 사마르칸트에서 열려 | 대한경제 김옥찬 기자 2024-09-30



[대한경제=김옥찬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5일 ~ 26일까지 양일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파견된 공공외교 사절단인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세 번째 기착지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방문과 양 도시 간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대표이사 전용우)이 주최·주관했다.

먼저 지난 9월 25일에는 영화의전당(대표이사 김진해)과 함께 사마르칸트 샤르크울두즈 극장에서 ‘부산 영화 상영회’를 개최했다. 부산 중앙고등학교 농구부의 감동 실화를 다룬 영화 ‘리바운드(2023년 작)’ 상영을 통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함과 동시에 현지 시민들에게 부산이 한 걸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상영 후 영화관을 꽉 채운 300여 명의 시민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등 열띤 반응을 보였다.

다음날인 9월 26일은 사마르칸트 주립 음악극장 극장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2시간여 동안 부산과 사마르칸트 양 도시의 예술단이 합동으로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부산 대표로 부산시립합창단(이기선 예술감독) 단원 30여 명이 무대를 꾸려, 한국의 가곡, 민요 메들리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인 ‘우츠크дук’, ‘봄은 마음에서 노래합니다’ 등을 준비해 사마르칸트 시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 사마르칸트에서는 문화예술공연단이 우즈베키스탄 전통무용과 케이-팝(K-POP) 댄스 등으로 화답하며 양 도시가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영화 상영회와 음악회 사전 행사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청년 단원들이 준비한 부산홍보 행사도 진행됐다. 단원들이 직접 준비한 한국 문화 체험, 오락, 이벤트에 현지 주민들이 참여하며 즐거운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이와 함께,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파즐리딘 우마로프 사마르칸트시장은 사마르칸트시청에서 면담 자리를 가졌다.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환대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우리나라 실�크로드를 통해 1400여 년 이상 교류의 역사를 함께 한 사마르칸트와 문화, 관광,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향후 활발한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사마르칸트는 우즈베키스탄 제2의 도시로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도시다”라며 “이번 1주년 기념행사가 양 도시의 문화적·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부산=김옥찬 기자 kochan20@

두바이에 울려 퍼진 “부산 이즈 굿 포 유”

| 유라시아 외교단, 해외 홍보 | 3개국 4개 도시 방문 마무리 | 부산일보 조영미 기자 2024-10-01



두바이에서 ‘부산 이즈 굿 포 유’(Busan is good for YOU)가 울려 퍼졌다. 3개국 4개 도시를 방문하고 있는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이 대장정의 마무리를 찍었다.

1일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에 따르면 시와 재단은 ‘유라시아 도시외교단’과 지난달 29일 오후 6~11시 두바이페스티벌 시티몰 야외광장에서 ‘부산 이즈 굿 포 유!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 행사를 개최했다.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부산의 해외 자매도시를 찾아 부산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도시 교류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 20일 부산에서 출발했다. 부산 지역 대학생, 문화예술인, 경제인 등으로 구성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를 거쳐 마지막 행선지인 두바이에서 부산을 홍보했다.

이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으로 부산의 흥을 전했다. 민속놀이, 태권도 체험, 유아 체험 활동, 음식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눈길을 끌었다. 두바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K팝 커버댄스 공연, 랜덤 댄스 플레이, K퀴즈 등을 선보이며 밤늦게까지 두바이의 밤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과 부산시의원, 두바이시,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두바이무역관, 두바이 교민·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정채숙 단장(부산시의원)은 “10일간의 긴 여정 동안 청년 외교단원들과 함께 성장하며 두바이에 도착했다”며 “부산 청년들이 매우 자랑스럽고, 밝고 친절할 미소로 외교단을 맞아준 두바이 시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Media coverage

언론보도 현황

국내 언론보도 [141건]

연번	매체	보도일자	작성자	기사 제목
1	국제뉴스	2024.09.19.	김옥빈	부산시립예술단,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문화사절단'으로 참가
2	글로벌경제	2024.09.19.	이승렬	부산시립예술단, 유라시아 3개국서 한국 문화 알린다
3	뉴스1	2024.09.20.	손연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13일간 3개국 4개 도시 방문
4	아시아경제	2024.09.20.	김철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 개최... 부산시, 민간외교활동 돌입
5	연합뉴스	2024.09.20.	조정호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13일간 3개국 4개 도시 방문
6	노컷뉴스	2024.09.20.	박종석	"부산을 알린다"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
7	글로벌경제	2024.09.20.	이승렬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로 글로벌 허브 도약 본격화
8	서울파이낸스	2024.09.20.	조하연	[부산소식]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 개최 등
9	경향신문	2024.09.20.	권기정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13일간 카자흐·우즈벡·UAE서 민간외교
10	KPI뉴스	2024.09.20.	최재호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15개 기관 125명 출정식
11	문화일보	2024.09.20.	이승륜	부산 도시외교단, 유라시아 대장정 돌입... 'Study Busan 30K Project'로 유학생 유치 박차
12	이뉴스투데이	2024.09.20.	박홍식	부산시·부산글로벌도시재단,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 개최
13	파이낸셜뉴스	2024.09.20.	권병석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13일간 민간 외교 활동
14	CNB뉴스	2024.09.20.	임재희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13일간 민간외교 대장정 돌입
15	대한경제	2024.09.20.	김옥찬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 개최
16	BBS뉴스	2024.09.20.	김상진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13일간 민간 외교활동 펼쳐
17	천지일보	2024.09.20.	윤선영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 민간외교 활동 돌입
18	아이뉴스24	2024.09.20.	정예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13일간 3개국 4개 도시 방문
19	국제뉴스	2024.09.20.	김옥빈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13일간 '민간 외교 활동' 시작
20	뉴스핌	2024.09.20.	남동현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유학생 유치 등 민간외교
21	NBN미디어	2024.09.20.	김재겸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 개최
22	베타뉴스	2024.09.20.	박현	부산시의회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 개최
23	매일신문	2024.09.20.	김동식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13일간 민간외교 활동
24	열린뉴스통신	2024.09.20.	이정희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 개최, 민간 외교
25	연합뉴스	2024.09.20.	강선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선서
26	연합뉴스	2024.09.20.	강선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승차권 전달
27	연합뉴스	2024.09.20.	강선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 깃발 전달
28	연합뉴스	2024.09.20.	강선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발 전 기념 촬영
29	연합뉴스	2024.09.20.	강선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 환송
30	연합뉴스	2024.09.20.	강선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 깃발 전달
31	연합뉴스	2024.09.20.	강선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 출발 퍼포먼스
32	연합뉴스	2024.09.20.	강선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 태권도 시범
33	서울경제	2024.09.20.	조원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13일간 대장정 돌입...3개국 4개 도시 방문
34	부산일보	2024.09.20.	박태우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13일간 3개국 4개 도시 대장정
35	뉴스투데이	2024.09.20.	조영준	부산시, 글로벌허브도시 위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 나선다
36	뉴스시스	2024.09.20.	백재현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13일간 민간외교 활동
37	서울경제TV	2024.09.20.	김정욱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부산역서 출정식 갖고 대장정 시작
38	와이드경제	2024.09.20.	뉴스시스 언론인용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13일간 민간외교 활동
39	LG헬로비전	2024.09.20.	차선영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대장정 시작... "부산 브랜드 알린다"
40	헤럴드경제	2024.09.20.	임순택	"부산의 비상, 글로벌 허브도시로"...'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 열고 대장정 스타트
41	국제뉴스	2024.09.20.	김옥빈	글로벌도시 관광진흥기구, 중앙아시아까지 활동무대 넓혀



연번	매체	보도일자	작성자	기사 제목
42	KNN	2024.09.20	표중규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
43	K스피릿	2024.09.20	정유철	부산시립합창단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시립국악관현악단 UAE 두바이 공연
44	일요신문	2024.09.21	이혜림	[부산시] 해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18회 세계해양포럼' 24일 개막 外
45	세계일보	2024.09.21	오성택	중앙아시아에 도시외교단 파견...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 개최
46	메트로신문	2024.09.21	이도식	글로벌도시 관광진흥기구,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합류
47	메트로신문	2024.09.21	이도식	부산시의회 정채숙 의원,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 개최
48	브레이크뉴스	2024.09.22	배중태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유학생 유치 등 13일간 민간 외교 활동
49	중도일보	2024.09.23	김성욱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13일간 3개국 방문
50	데일리한국	2024.09.23	이가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 브랜딩
51	BBS NEWS	2024.09.23	김상진	[시민행복뉴스]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촉구 서명운동 73만 돌파
52	뉴스핌	2024.09.24	남동현	부산시, 카자흐스탄과 영화·교육·공연 분야별 교류 본격화
53	뉴스1	2024.09.24	손연우	부산시-카자흐스탄 알마티, 영화·교육·공연 분야 교류 협력
54	연합뉴스	2024.09.24	조정호	부산시, 알마티와 영화·교육·공연 교류 확대
55	대한경제	2024.09.24	김욱찬	부산시-카자흐스탄 알마티, 영화·교육·공연 분야별 교류에 박차
56	데일리한국	2024.09.24	양준모	부산시-카자흐스탄 알마티, 영화·교육·공연 분야별 교류 박차
57	불교공뉴스	2024.09.24	연하심	부산시-카자흐스탄 알마티, 영화·교육·공연 분야별 교류에 박차
58	파이낸셜뉴스	2024.09.29	변옥환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중앙아시아 현지서 유학생 유치 설명회
59	아시아경제	2024.09.29	김철우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활동
60	에너지경제	2024.09.29	이상욱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나서
61	KPI뉴스	2024.09.29	최재호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중앙아시아서 유학생 유치활동
62	뉴스핌	2024.09.29	남동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중앙아시아 유학생 부산 유치' 설명회
63	노컷뉴스	2024.09.29	김혜경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활동 나서
64	글로벌경제	2024.09.29	이승렬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활동 성과
65	시민일보	2024.09.29	최성일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활동 전개
66	전국매일신문	2024.09.29	이채열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활동 전개
67	대한경제	2024.09.29	김욱찬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활동 전개
68	NBN미디어	2024.09.29	김재겸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통해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활동 적극 전개
69	시사매거진	2024.09.29	김유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사마르칸트에서 부산 홍보
70	브릿지경제	2024.09.29	도남선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활동 전개
71	중도일보	2024.09.29	김성욱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활동
72	스카이데일리	2024.09.29	김종창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활동 전개
73	서울경제TV	2024.09.29	김정욱	부산시, 지역 8개 대학과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활동 박차
74	헤럴드경제	2024.09.29	임순택	부산시, 지역 8개 대학과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활동에 '팔 걷어'
75	매일신문	2024.09.29	김동식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나섰다
76	파이낸셜뉴스	2024.09.29	변옥환	태권도 시범까지... 해외서 유학생 유치 힘쓴 청년들
77	불교공뉴스	2024.09.29	연하심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활동 전개
78	국제신문	2024.09.29	이병욱	부산시, 지역 8개대와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활동
79	뉴스1	2024.09.30	손연우	부산-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행사
80	연합뉴스	2024.09.30	조정호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행사
81	파이낸셜뉴스	2024.09.30	박재관	부산-우즈베크 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행사
82	글로벌경제	2024.09.30	이승렬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행사 성료
83	대한경제	2024.09.30	김욱찬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행사' 개최
84	노컷뉴스	2024.09.30	박진홍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1주년 기념행사
85	아시아경제	2024.09.30	김철우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행사' 개최
86	메트로신문	2024.09.30	이도식	부산시,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활동 전개
87	포인트경제	2024.09.30	정선	부산시,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나서
88	CNB뉴스	2024.09.30	임재희	"유학하기 좋은 부산"...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활동
89	KBS	2024.09.30	장성길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활동
90	CNB뉴스	2024.09.30	임재희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행사' 개최
91	이뉴스투데이	2024.09.30	박홍식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연번	매체	보도일자	작성자	기사 제목
92	아이뉴스24	2024.09.30	정예진	부산-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행사
93	전국매일신문	2024.09.30	이채열	부산시-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행사 개최
94	시사매거진	2024.09.30	김유진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1주년 기념행사 개최
95	데일리한국	2024.09.30	양준모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행사' 개최
96	메트로신문	2024.09.30	이도식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행사 개최
97	아주경제	2024.09.30	박연진	부산-사마르칸트 우호 협력관계 체결 1주년 기념
98	매일신문	2024.09.30	김동식	부산-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행사 열어
99	서울경제TV	2024.09.30	김정욱	부산시, 사마르칸트와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1주년...기념행사 개최
100	스포츠동아	2024.09.30	김태현	부산시, 지역 8개 대학과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설명회' 개최
101	헤럴드경제	2024.09.30	임순택	부산시-사마르칸트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맺은 지 1주년... 특별기념 행사
102	불교공뉴스	2024.09.30	연하심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행사' 개최
103	파이낸셜뉴스	2024.10.01	박재관	부산시, '페스타 인 두바이'로 글로벌 도시외교 강화
104	연합뉴스	2024.10.01	민영규	두바이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홍보... 도시외교 강화
105	아시아경제	2024.10.01	김철우	부산시,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 글로벌 도시외교 강화
106	뉴스1	2024.10.01	조아서	부산시,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로 글로벌 도시 외교 강화
107	뉴스핌	2024.10.01	남동현	부산시,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로 글로벌 도시 외교 강화
108	노컷뉴스	2024.10.01	김혜경	부산시,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로 글로벌 도시 외교 강화
109	글로벌경제	2024.10.01	이승렬	부산,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 통해 글로벌 도시 외교 강화
110	경향신문	2024.10.01	권기정	두바이서 '글로벌 부산' 매력 알렸다... 카자흐 우즈베크 이어 도시외교 성과
111	브릿지신문	2024.10.01	도남선	부산시,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로 글로벌 도시 외교 강화
112	대한경제	2024.10.01	김욱찬	부산시,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로 글로벌 도시 외교 강화
113	시사매거진	2024.10.01	김유진	부산시·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자매도시' 두바이서 행사 개최
114	중도일보	2024.10.01	김성욱	부산시, '페스타 인 두바이'로 글로벌 도시 외교 강화
115	이뉴스투데이	2024.10.01	박홍식	부산시,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로 글로벌 도시 외교
116	매일신문	2024.10.01	김동식	부산시, '부산 이즈 굿 포 유!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 행사 개최
117	서울경제TV	2024.10.01	김정욱	부산시, 자매도시 두바이서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 행사 열어
118	헤럴드경제	2024.10.01	임순택	부산시, 자매도시 두바이서 문화·경제교류 행사... "부산 매력 어필"
119	메트로신문	2024.10.01	이도식	부산시,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 개최... 2000여명 참석
120	한국경제	2024.10.01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로 도시 홍보
121	부산일보	2024.10.01	조영미	두바이에 울려 퍼진 "부산 이즈 굿 포 유"
122	포인트경제	2024.10.01	정선	부산시, 두바이서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 개최... 글로벌 도시 외교의 장 마련
123	일요신문	2024.10.02	이혜림	[부산시] '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행사' 개최
124	경남신문	2024.10.02	박진우	부산시, 두바이서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 개최
125	CNB뉴스	2024.10.02	임재희	부산시, 두바이서 '글로벌 허브도시' 매력 발산
126	NBN미디어	2024.10.02	김재겸	부산시, 두바이서 '글로벌 허브도시' 매력 발산
127	파이낸셜뉴스	2024.10.03	박재관	부산시, 자매도시 두바이와 교류협력 다져
128	연합뉴스	2024.10.03	손형주	부산시, 자매도시 두바이와 교류 협력 논의
129	글로벌경제	2024.10.03	이승렬	부산시, 두바이와 협력 강화 방안 논의
130	핀포인트뉴스	2024.10.03	자선희	부산, 두바이와 손잡고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 박차
131	아시아경제	2024.10.03	김철우	부산시, 자매도시 두바이와 교류협력 다져
132	이뉴스투데이	2024.10.03	박홍식	부산시, 자매도시 두바이와 교류협력 다져
133	대한경제	2024.10.03	김욱찬	부산시, 자매도시 두바이와 교류협력 다져
134	전국매일신문	2024.10.03	이채열	부산시, 자매도시 두바이와 교류협력 다져
135	노컷뉴스	2024.10.03	박진홍	부산시, 자매도시 두바이와 교류 협력 방안 논의
136	서울신문	2024.10.03	정철욱	부산시, 글로벌 허브 도시 두바이와 협력 강화 논의
137	부산일보	2024.10.03	박태우	부산시 '아시아 허브' 두바이와 교류협력 강화
138	파이낸셜뉴스	2024.10.03	권병석·박재관	"향만 관광... 담은골 부산 두바이 협력 유지"
139	부산MBC 자갈치 아지매	2024.10.08	손희승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소개 및 사업성과 인터뷰
140	부산KBS 시사포커스	2024.10.15	전미경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소개 및 사업성과 인터뷰
141	부산MBC 뉴스투데이	2024.10.16	정채숙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소개 및 사업성과 인터뷰

해외 언론보도 [12건]

연 번	매 체	보도일자	기사 제목
1	Observer Dubai	2024.09.26.	'Busan Festa in Dubai' Showcases Busan City's Global Diplomacy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 부산시의 글로벌 외교 시작) https://www.observerdubai.com/2024/09/26/busan-festa-in-dubai-showcases-busan-citys-global-diplomacy/
2	pan time arabia	2024.09.26.	'Busan Festa in Dubai' Showcases Busan City's Global Diplomacy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 부산시의 글로벌 외교 시작) https://pantimearabia.com/busan-festa-in-dubai-showcases-busan-citys-global-diplomacy/
3	Dubai Magazine	2024.09.26.	'Busan Festa in Dubai' Showcases Busan City's Global Diplomacy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 부산시의 글로벌 외교 시작) https://www.dubaimagazine.net/wp/?p=19523&lang=en
4	GulfSCOOP	2024.09.30.	'Busan Festa in Dubai' Wraps Up with Cultural Performances and Strengthened Friendship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 문화공연을 통해 우정이 돈독해지다) https://gulfscoop.com/busan-festa-in-dubai-wraps-up-with-cultural-performances-and-strengthened-friendship/
5	youtheve media	2024.09.30.	'Busan Festa in Dubai' Wraps Up with Cultural Performances and Strengthened Friendship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 문화공연을 통해 우정이 돈독해지다) https://youthevemedia.com/busan-festa-in-dubai-wraps-up-with-cultural-performances-and-strengthened-friendship/
6	UAE News 24/7	2024.10.01.	'Busan Festa in Dubai' Wraps Up with Cultural Performances and Strengthened Friendship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 문화공연을 통해 우정이 돈독해지다) https://uaenews247.com/tag/busan-festa-in-dubai/
7	DUBAI GLOBAL NEWS	2024.10.01.	'Busan Festa in Dubai' Wraps Up with Cultural Performances and Strengthened Friendship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 문화공연을 통해 우정이 돈독해지다) https://www.dubaiglobalnews.com/tag/busan/
8	iheartemirates	2024.10.01.	'Busan Festa in Dubai' Wraps Up with Cultural Performances and Strengthened Friendship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 문화공연을 통해 우정이 돈독해지다) https://www.dubaiglobalnews.com/tag/busan/
9	Khaleej Times	2024.10.02.	'Busan Festa in Dubai' wraps up with cultural performances and strengthened ties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 공연과 함께 마무리) https://www.khaleejtimes.com/kt-network/busan-festa-in-dubai-wraps-up-with-cultural-performances-and-strengthened-ties
10	GULF NEWS	2024.10.02.	'Busan Festa in Dubai' wraps up with cultural shows, vows of friendship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 공연과 함께 마무리) https://gulfnews.com/business/corporate-news/busan-festa-in-dubai-wraps-up-with-cultural-shows-vows-of-friendship-1.1727862703422
11	BOL INDIA NEWS	2024.10.03.	Busan Festa in Dubai' Wraps Up with Cultural Performances and Strengthened Friendship (‘부산페스타 인 두바이’ 공연과 함께 관계 강화를 다지며 마무리) https://www.youtube.com/watch?v=y-MGUIZfZAO
12	haps Magazine KOREA	2024.10.04.	Busan Strengthens Sister City Ties With Dubai Through City Diplomacy Initiative (부산, 도시외교를 통해 두바이와 자매도시 관계 강화) https://www.hapskorea.com/busan-strengthens-sister-city-ties-with-dubai-through-city-diplomacy-initiative/



BUSAN

AMMAN

SAMARKAND

SHANGHAI

DURAI

07

Progress status

연도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추진 현황

Progress status

주요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국가/도시	1개국, 7개 도시	3개국, 10개 도시	3개국, 11개 도시	5개국, 10개 도시
규모 대원, 협력기관 파견인원 포함	130명 대원 55명	177명 대원 56명	107명 대원 55명	104명 대원 56명
행사 수	15개	19개	21개	24개
언론보도	국내 125건 국외 39건	국내 156건 국외 26건	국내 147건 국외 72건	국내 87건 국외 24건
의원참석 단장자격	권오성 새누리당	박성명 바른정당 이상민 자유한국당 ※ 공동단장	6.13 지방선거로 인한 불참	도용희 더불어 민주당



구분	2021	2022	2023	2024
국가/도시	3개국, 3개 도시	5개국, 5개 도시	4개국, 5개도시	3개국, 4개도시
규모 대원, 협력기관 파견인원 포함	-	55명 대학생 9, 시의원, 경제인, 운영진 및 공연단 등 46명	89명 청년 15, 시의원, 경제인, 대학 등 74명	125명 청년 19명, 시의원, 대학 관계자, 예술인 등 109명
행사 수	3개	14개	23개	42개
언론보도	부산 MBC 방영 (항구의 랩소디)	국내 80건	79건	153건 (국내 141건, 해외 12건)
의원참석 단장자격	-	안성민 국민의힘, 단장, 시의장 박희용 국민의힘, 부단장 ※ 시의장/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성창용 ※공동단장	정채숙

BUSAN

AMIN

SALAKO D

FISHAN

DURAN

08

BGCF status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글로벌도시재단 현황



BGCF status

설립개요

설립개요

설립연도 2005. 11. 25. (개소 2006. 2. 28.)

설립근거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설립목적 국제교류 업무 및 영어방송업무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추진 도모

설립개요

- 01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 0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통상활동 지원 사업
- 03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 04 영어 등 다국어방송을 통한 정보·지식의 제공
- 0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운용
- 06 방송광고의 편성·조정
- 07 해외 방송사와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외국어 교육 관련 사업
- 08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BGCF status

주요연혁 및 시설

주요연혁

2006.02	부산국제교류재단 개소
2009.03	1577-7716 외국인콜센터 개소
2011.03	부산글로벌센터 개소 및 사무처 이전
2013.05	부산국제교류재단 안전행정부장관상 수상
2016.05	부산국제교류재단 대통령상 수상
2019.12	부산시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설치·운영
2021.04	국가재난관리기여(코로나19 방역)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021.10	'2021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021.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상(아이키우기 좋은기업상) 수상
2021.12	'주민참여 디지털기반 지역사회 현장문제 해결사업'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023.07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과 통폐합으로 '부산광역시글로벌도시재단'(2023.07.01.부) 출범



부산글로벌센터(국제교류본부)

위 치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 부산회관 13층

시설현황 대표이사실, 사무처, 강의실, 회의실, 교류라운지 등

연주소(영어방송본부)

위 치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센텀벤처타운 401호

시설현황 사무처, 회의실, 응접실, 주조정실, 스튜디오, 편집실 등

송신소 (주) 황령산 송신소 / (보조) 기장, 녹산, 정관 방송보조국

송신시설 송신탑 안테나, 송신설비

BGCF status

조직





Busan is good

Busan is good

مدينة دبي
Dubai Festival City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활동보고서

발 행 전용우
편 집 교류협력2팀
편집제작 홍성디자인
발 행 일 2024년 12월 15일
발 행 처 부산글로벌도시재단 교류협력2팀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13층
대표전화 051) 711-6878
팩 스 051) 711-6826
홈페이지 www.bfic.kr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